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11-10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9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2020. 6. 1.

연구용역책임자 :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문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용역 의뢰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6. 1.

연구용역책임자 김동준 이사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평가위원

김준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평가단장)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노민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이상희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송영출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정아 숭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

현수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원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전현민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배한형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전임연구원



차례

I .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1
1.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3
2.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4
3. 경영실적 평가방법	7
II .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1
1. 종합 평가결과	13
2. 평가범주별 결과	17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34
III .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47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9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77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09
4. 한식진흥원	135
IV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165
1. 정책제언	167

I .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개요

I.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1.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1) 연구 배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기타공공기관도 경영 개선과 부채관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주무 부처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해왔다.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부터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한식진흥원(구 한식재단)이 추가된 이후 2020년 현재 6년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 평가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포괄적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연구용역 수행 기간 및 일정

- 경영평가단은 2020년 3~6월에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의 2019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공공기관이 작성·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사전 서면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가대상 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경영실적평가 주요 일정 >

■ 2020년 3월 04일	계약체결
■ 2020년 3월 11일	경영평가단 운영 일정협의 및 착수보고
■ 2020년 3월 20일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평가위원 배부
■ 2020년 3월 27일	피평가기관 대상 평가설명회
■ 2020년 4월 01일 ~ 4월 06일	서면평가
■ 2020년 4월 08일 ~ 4월 15일	현장평가 확인사항 도출
■ 2020년 4월 23일 ~ 4월 24일	현장평가
■ 2020년 4월 27일 ~ 5월 08일	평가결과의 종합 및 검토
■ 2020년 5월 09일 ~ 5월 29일	평가결과 초안 도출
■ 2020년 5월 20일 ~ 5월 26일	기관별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2020년 5월 27일 ~ 5월 30일	평가위원별 이의신청 조정 여부 검토
■ 2020년 5월 30일	이의신청 사항 조정결과 회신 및 결과 확정
■ 2020년 6월 01일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2.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1) 경영평가단 구성

- 2019년 대비 2020년 평가단 구성과 평가방법 등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총 11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관리 부문(3인) 및 주요사업 부문(9인/기관별 2인, 공통 1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평가위원은 (前)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교수, 박사 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였으며, 평가단은 사전모임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지표(계량·비계량)는 담당 평가위원 3인이 4개 기관을 공통으로 평가하고, 주요사업지표(계량)는 각 기관의 세부분야 관련 전문 평가위원 2인이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주요사업지표(비계량)는 각 기관의 세부분야 관련 전문 평가위원 2인과 경영관리지표를 담당할 위원 중 경영관리 전문 평가위원 1인이 평가하였다.
 - 2020년 현장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 및 전화 통화를 활용하여 원격평가로 진행되었다.
- 현장평가에서는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을 지표별 담당자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평가의견서는 각 피평가기관에 회람시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평가위원 경력 및 역할 분담>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1	평가 단장	김준식	공공정책성과 평가연구원	연구 위원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고양시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위원(2010~2019) - 국방부 운영심의회 위원(2016~2019)	- (경영관리, 4개 기관 공통) 사회적 가치구현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2	연구 책임 (평가 위원)	김동준	공공정책성과 평가연구원	이사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2019~2021)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본위원(2018~2020) -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영평가위원(2020)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2018~2022)	- (경영관리, 4개 기관 공통) 국민소통 및 혁신, 재무 예산관리 계량·비계량지 표 평가 및 집필 - (주요사업, 4개기관 공통)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 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3	평가 위원	노민택	공공정책성과 평가연구원	연구 위원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인천시 자체평가위원(2019) - 국방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위원(2015~2019) - 경기도 지역발전사업 자체 평가위원(2015~2017)	- (경영관리, 4개 기관 공통) 보수 및 복리후생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4	평가 위원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심의 위원(2013~2019)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 자문 위원 (2012~2019) -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2012~2019)	-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방역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5	평가 위원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위험평가 전문가협의체 위원(2019-2021)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 위원(2019-2021)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회 위원(2018-2020) - 질병관리본부 제4기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2018-2020) 	-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축산물위생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6	평가 위원	이상휘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 투자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임이사(2015~2019) - 한국기업경영학회 상임이사(2015~2019)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2009~2010, 2013~2019) 	-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7	평가 위원	송영출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우체국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2015~2017) -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 관리위원(2012~2014)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2009~2014) 	-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업재해보험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8	평가 위원	서정아	송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 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2015~2016) - 농림축산식품부 5급 과학 기술박사특채 사무관(2007~2013) -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 연구소 전임연구교수(2006~2007) 	-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선박 아시아매미 나방 검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9	평가 위원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농촌진흥청 병해충 위험평가 심의위원(2019~2019) - 환경부 LMO 위해성 심사 위원(2014~2019) -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2013~2019) 	-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AGM 예찰 방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10	평가 위원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이사(2019)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심사반 위원장(2015~2019)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2010~2011, 2013, 2016) 	-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한식전문인력양성 지원 사업 실적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11	평가 위원	황윤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유통연구센터 연구위원(2006~2019) - 한국식생활교육학회 상임 이사(2019~2019) 	-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한식문화관 운영성과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3. 경영실적 평가방법

-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및 최근 몇 년간 경영 개선 추세와 비교하여 2020년도 경영 개선 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범주는 경영관리(45점)와 주요사업(55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는 사회적 가치구현, 국민소통 및 혁신, 재무예산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의 4개 하위 평가요소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가치구현 하위요소는 일자리 창출(계량 및 비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및 비계량), 안전 및 환경(비계량),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윤리경영(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민소통 및 혁신 하위요소는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국민평가(계량), 경영정보 공시(계량)에 대해 평가하였고, 보수 및 복리후생 하위요소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총인건비 관리(계량), 노사관계(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등의 종합평가 및 기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평가하되, 주요사업 종합평가는 비계량평가를,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계량평가를 시행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3),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3),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3)), 국민소통 및 혁신(국민평가(4), 경영정보 공시(2)), 재무예산관리(재무예산 운영성과(5)), 보수 및 복리후생(총인건비 관리(5))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 대 실적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는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3),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 안전 및 환경(2), 윤리경영(3)), 국민소통 및 혁신(혁신 노력 및 성과(3)), 보수 및 복리후생(보수 및 복리후생(4), 노사관계(3))로 구성되었으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경우 4개 기관의 개별 사업단위별로 추진 계획·활동·성과·환류 과정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는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및 가중치>

범주	지 표 명	가 중 치		합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1. 사회적 가치구현	10	9	19
	(1) 일자리 창출	3	3	6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3	5
	(3) 안전 및 환경	2	-	2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3	3
	(5) 윤리경영	3	-	3
	2. 국민소통 및 혁신	3	6	9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	3
	(2) 국민평가	-	4	4
	(3) 경영정보 공시	-	2	2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	5	5
	(1) 재무예산 운영·성과	-	5	5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7	5	12
	(1) 보수 및 복리후생	4	-	4
	(2) 총인건비 관리	-	5	5
	(3) 노사관계	3	-	3
소계		20	25	45
주요 사업 (55)	주요사업별 계량지표	-	30	30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	18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	7
	소계		25	30
합 계		45	55	100

○ 기관의 종합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등급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지표별 평가점수 :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종합평가 결과 산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

<평가결과 종합점수 기준 및 수준 정의>

등급	종합점수	수준 정의
탁월 (S)	100~90점 이상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A)	90점 미만~8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B)	80점 미만~7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C)	70점 미만~60점 이상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D)	60점 미만~50점 이상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50점 미만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 평가지표 세부 내용은 4개 평가대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기관별 주요사업 세부지표 내용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19.11)」에 의거한다.

Ⅱ.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II.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종합 평가결과

-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된 “농림축산식품부 (2019.11) 「2019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준거하여 경영관리 범주(45점)와 주요사업 범주(55점)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각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각각 가중치 55:45로 평가하였다. 계량지표는 산식에 실적치를 적용하고 가중치에 따라 평가점수를 계산하였으며,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A+’에서 ‘E0’까지 총 9단계로 평가하였다.
- 2019년도 기타공공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기관 간의 경영성과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평가하였다.
- 기관별 총점 결과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9.98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86.95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83.76점) > 한식진흥원(81.01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범주의 득점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38.68점) > 한식진흥원(37.03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36.55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34.43점)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의 득점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51.30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50.40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49.33점) > 한식진흥원(4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평가 등급은 4개 기관 모두 A등급으로 나타났으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식진흥원 간의 차이는 8.97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기타공공기관 지표별 평가 총괄>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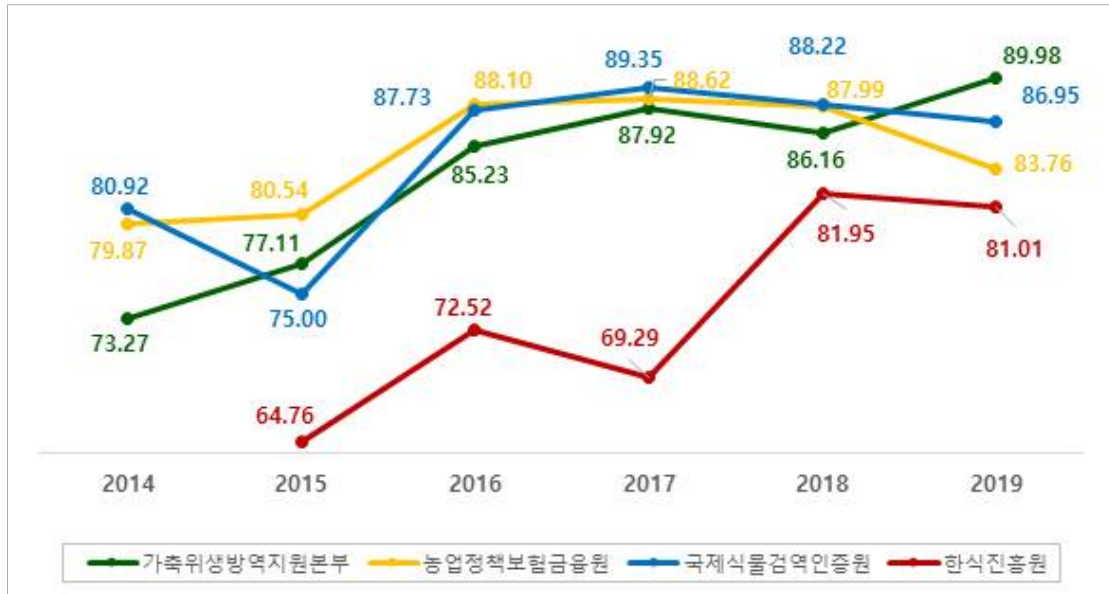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경영관리	사회적 가치구현	19	16.38 (86.21)	12.39 (65.21)	14.53 (76.47)	15.75 (82.89)
	국민소통 및 혁신	9	7.16 (79.56)	7.31 (81.22)	7.39 (82.11)	7.62 (84.67)
	재무예산 관리	5	4.94 (98.80)	4.53 (90.60)	3.73 (74.60)	4.86 (97.20)
	보수 및 복리후생	12	10.20 (85.00)	10.20 (85.00)	10.90 (90.83)	8.80 (73.33)
경영관리 득점	45	38.68	34.43	36.55	37.03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계량지표	30	30.00 (100.00)	29.13 (97.10)	29.40 (98.00)	29.98 (99.93)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16.20 (90.00)	14.60 (81.11)	14.00 (77.78)	11.20 (62.22)
	지표구성의 적정성	7	5.10 (72.86)	5.60 (80.00)	7.00 (100.00)	2.80 (40.00)
주요사업 득점	55	51.30	49.33	50.40	43.98	
총점	100	89.98	83.76	86.95	81.01	
등급		A	A	A	A	
순위		1	3	2	4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경영평가가 시작된 2014년(1차 평가연도)부터 2019년(6차 평가연도)까지의 결과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매년 비슷한 평가 결과를 보였으며, 3년 차 시점부터 성과가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식진흥원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2015년도부터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그래프상 5개년도 점수만 표시하였다.

<기관별 총점 변화 추세(6개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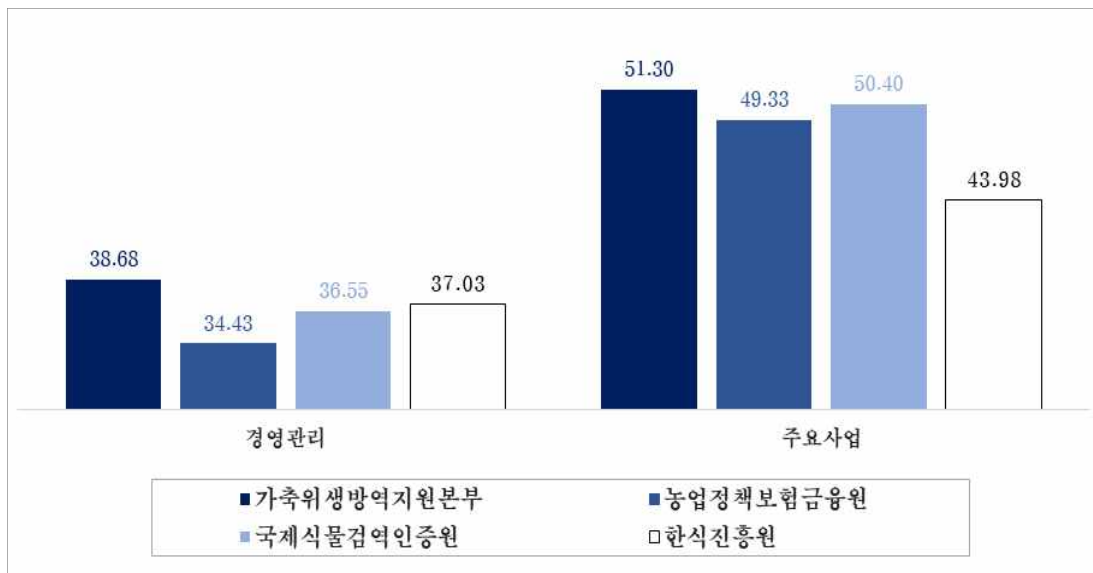
(단위 : 점)



○ 경영관리(45점 만점) 범주와 주요사업(55점 만점) 범주의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 범주 모두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각각 38.68점, 51.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4.43점,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한식진흥원이 43.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평가범주별 종합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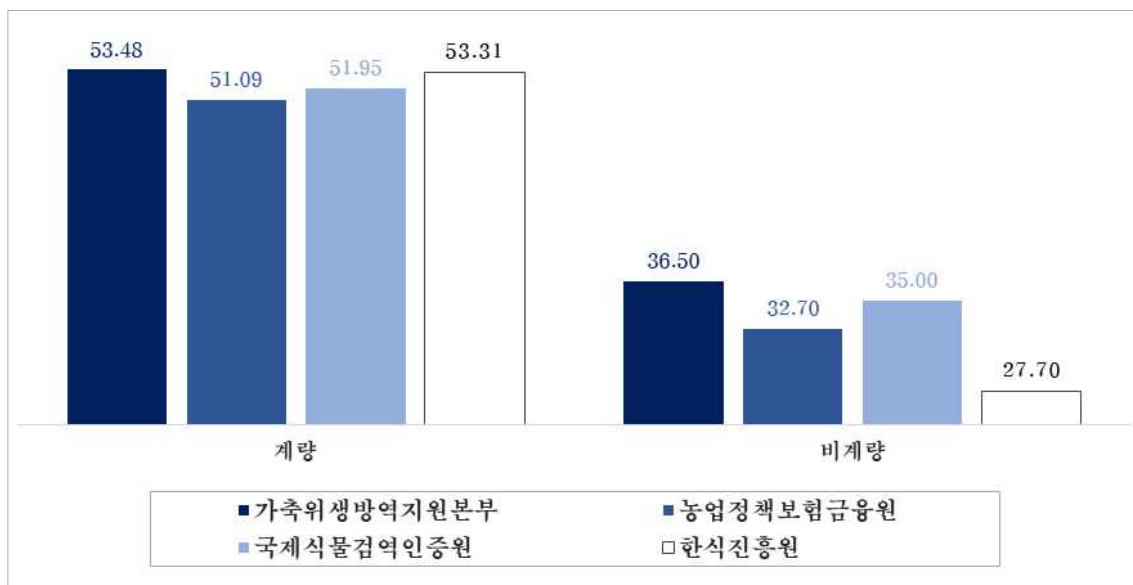
(단위 : 점)



- 계량지표(55점 만점) 평가와 비계량지표(45점 만점) 평가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계량지표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53.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식진흥원 53.31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1.95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51.09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계량지표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36.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5.0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2.70점, 한식진흥원이 27.70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계량 및 비계량지표 평가결과>

(단위 : 점)



2. 평가범주별 결과

-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2018년도 신규 도입된 경영관리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과 혁신 노력 및 성과지표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의 일자리 창출(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은 기관이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에 대한 자체판단 결과를 활용하여 가중치를 설정해야 하나, 4개 기관이 공통으로 자율선택지표 선정의 근거 제시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목표치 및 산출방법에 따라 기관별 유불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계량지표가 기관의 주요사업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존재하거나 임계치가 다다른 지표의 경우 새로운 대표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식진흥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지표의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지표가 현재 모태펀드 회수 실적의 안정화 단계로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영평가 초기부터 활용한 지표인 만큼 새로운 지표 발굴을 위해 기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대부분 항목에서 목표치 이상으로 매우 높은 달성도를 보이며 만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한식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지표 산식을 보면, 분자에 교육인원과 교육지역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산식은 지역을 늘리게 되면 목표달성도가 100% 넘어가게 되어 바람직한 지표로 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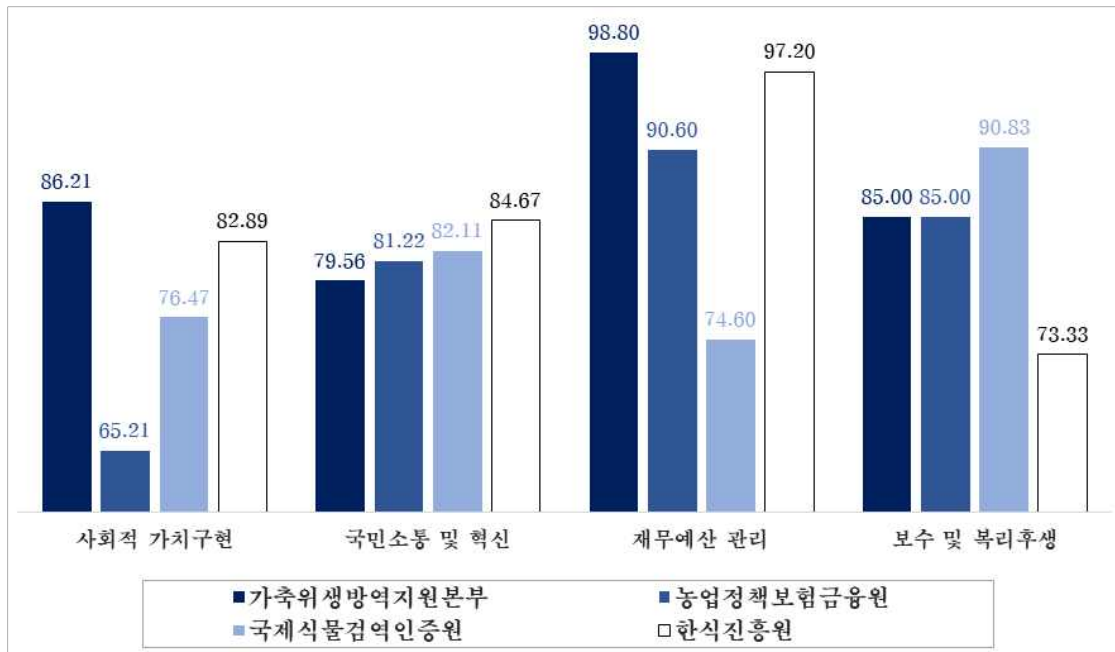
1 경영관리 범주

(1) 종합 득점 결과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45점 만점)을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8.68점(85.96%) > 한식진흥원 37.03점(82.29%)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6.55점(81.22%)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4.43점(76.51%) 순으로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지표 23.48점, 비계량지표 15.20점, 합계 38.6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 23.33점, 비계량지표 13.70점, 합계 37.03점을 획득하였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지표 22.55점, 비계량지표 14.00점, 합계 36.55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에서 21.93점, 비계량지표에서 12.50점으로 합계 34.43점을 획득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중 사회적 가치구현의 총점(19점 만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6.38점(86.21%)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이 15.75점(82.89%),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14.53점(76.47%),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2.39점(65.21%)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국민소통 및 혁신의 총점(9점 만점)은 한식진흥원이 7.62점(84.67%)으로 가장 높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7.39점(82.11%),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7.31점(81.2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7.16점(79.56%)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재무예산관리의 총점(5점 만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4.94점(98.80%)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이 4.86점(97.2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4.53점(90.60%),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73점(74.6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보수 및 복리후생의 총점(12점 만점)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10.90점(90.83%)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0.20점(85.00%), 한식진흥원이 8.80점(73.33%)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경영관리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

(단위 : %)



-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3.92%) > 한식진흥원(93.32%) > 국제식물검역인증원(90.2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87.72%)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8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21.48점→22.55점), 한식진흥원(21.92점→23.33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3.54점→23.48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21.98점→21.93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점수>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3	3.00 (100.00)	3.00 (100.00)	3.00 (100.00)	3.00 (100.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68 (89.33)	2.10 (70.00)	2.93 (97.67)	2.74* (91.33)*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3	3 (100.00)	2.39 (79.67)	3 (100.00)	2.81 (93.67)
국민소통 및 혁신	국민평가	4	3.53 (88.25)	3.24 (81.00)	3.56 (89.00)	3.25 (81.25)
	경영정보 공시	2	1.33 (66.50)	1.67 (83.50)	1.33 (66.50)	1.67 (83.50)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94 (98.80)	4.53 (90.60)	3.73 (74.60)	4.86 (97.20)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충인건비 관리	5	5.00 (100.00)	5.00 (100.00)	5.00 (100.00)	5.00 (100.00)
총점		25	23.48 (93.92)	21.93 (87.72)	22.55 (90.20)	23.33 (93.32)
순위			1	4	3	2

* 한식진흥원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지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세부지표로 인하여 1.5점 만점으로 계산 후, '사회적 가치구현' 범주 전체에 대하여 19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차이 1.24점을 더함.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6.00%)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00%) > 한식진흥원(68.5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62.50%)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8년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한식진흥원(12.13점→13.70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5.67점→15.2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15.20점→12.5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14.46점→14.00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3	2.40 (80.00)	2.10 (70.00)	2.40 (80.00)	2.10 (70.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60 (80.00)	1.40 (70.00)	1.60 (80.00)	1.60 (80.00)
	안전 및 환경	2	1.60 (80.00)	1.40 (70.00)	1.60 (80.00)	1.40 (70.00)
	윤리경영	3	2.10 (70.00)	0.00 (0.00)	0.00 (0.00)	2.10 (70.00)
국민소통 및 혁신	혁신 노력 및 성과	3	2.30 (76.67)	2.40 (80.00)	2.50 (83.33)	2.70 (90.00)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4	2.80 (70.00)	2.80 (70.00)	3.20 (80.00)	2.00 (50.00)
	노사관계	3	2.40 (80.00)	2.40 (80.00)	2.70 (90.00)	1.80 (60.00)
총점		20	15.20 (76.00)	12.50 (62.50)	14.00 (70.00)	13.70 (68.50)
순위			1	4	2	3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2) 지표별 평가결과

-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지표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식진흥원은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사회형평적 활동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인증원은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 이슈로 인하여 윤리경영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 지표의 비계량지표인 혁신 노력 및 성과의 경우 4개 기관 모두 세부항목 전체에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4개 기관 모두 사업비 집행률은 양호하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인증원은 전년 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에서는 계량지표인 총인건비 관리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기준 1.80% 이하를 준수하여 만점(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1.80%이나 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2.80% 이하인 기준에 따라 2.80% 이하를 준수하여 만점(5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비계량지표인 보수 및 복리후생, 노사관리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모두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한식진흥원의 경우 보수 및 복리후생 세부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회적 가치구현(19점 만점)

- 4개 기관 모두 ‘사회적 가치구현’ 편람상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일자리 창출(6점)

- 일자리 창출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각각 B+(2.4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식진흥원이 각각 B0(2.1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 계량지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4개 기관 모두 3.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4개 기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없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2019.11) 「2019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준거하여 연도별 계획(누적)대비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100% 전환 (누적)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체계성을 정립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5점)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이 B+(1.6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0(1.4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지표의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2.93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2.68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1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세부지표로 인하여 1.5점 만점의 1.5점을 획득하였으며, 사회적 가치구현 범주를 17.5점 만점으로 계산 후 19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1.24점을 합산하면 2.74점으로 나타났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었지만, 기관의 여건 및 업무 특성, 발전 방향을 고려한 고용 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의 제고가 요구되었으며,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다. 특히, 직원에 대한 설문/의견 조사 활동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 및 환경(2점)

- 안전 및 환경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1.60점)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식진흥원이 B0(1.4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정보보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나, 관리책임 부서/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예방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었으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에 대한 전담인력 규모의 충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3점)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이 2.81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39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모든 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

을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고, 여러 항목에서 기준치의 10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의 경우 필수선택 항목에 대해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리경영(3점)

- 윤리경영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식진흥원이 B0(2.10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국가 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차원의 경고를 받아 3점 감점으로 0(0.00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가 제시되고 있으나, 윤리경영체계 구축 개념 및 추진 방향 설정의 체계성 부분에서는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기관 모두 다양한 자체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징계/경고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식진흥원 또한 타 기관의 사례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9점 만점)

- 4개 기관 모두 혁신 노력 및 성과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 혁신 노력 및 성과(3점)

- 혁신 노력 및 성과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편람에 따라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 중점추진과제의 성과 1.00점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기관별 평가 득점은 한식진흥원이 B+(0.80점), A+(1.00점), A0(0.90점)로 총점 2.7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C(0.60점), A+(1.00점), A0(0.90점)로 총점 2.5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C(0.60점), A+(1.00점), B+(0.80점)로 총점 2.4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B+(0.80점), B0(0.70점), B+(0.80점)로 총점 2.3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모두 나름대로 혁신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PDCA를 통해 기관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18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이외 3개 기관 또한 혁신추진계획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각 혁신실행 과제들에 대해서 구성원 공유와 점검 또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점검, 소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기관 운영에 활용하는 노력이 우수하다. 다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사유가 제시되는지, 소극행정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국민평가(4점)

- 국민평가 계량지표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취득한 점수를 가중치 4점에 적용한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산출하였다. 기관별 고객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및 평가 득점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89점으로 3.56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88.14점으로 3.53점, 한식진흥원은 81.16점으로 3.25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81.04점으로 3.24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경영정보 공시(2점)

- 경영정보 공시 계량지표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기재된 기관별 공시 종합 별점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의 배점 기준에 따라 가중치 2점에 적용하였다. 기관별 경영정보 공시 평가결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별점 4.6점으로 1.67점, 한식진흥원의 경우 별점 7점으로 1.67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별점 16점으로 1.33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별점 17점으로 1.33점의 순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5점 만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의 사업비 집행률은 모두 90% 이상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74.60%)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므로 이월금을 만들어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지표의 경우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액/사업비 예산현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비 집행률은 98.80%로 가장 높아 4.94점을 취득하였으며, 한식진흥원은 97.20%로 4.86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0.60%로 4.53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74.60%로 3.73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사업비 집행률은 양호하나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비교적 연간 계획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한식진흥원의 경우 연말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12점 만점)

- 전체적으로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무엇이 변화하였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소통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주체(진흥원, 상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보수 및 복리후생(4점)
 - 보수 및 복리후생 비계량지표의 경우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B+(3.20점)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B0(2.80점), 한식진흥원은 D+(2.0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 인력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복리후생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총인건비 관리(5점)
 - 총인건비 관리 계량지표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을 준수 여부(1.80% 이하/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

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2.80%)를 평가하는 지표로, 4개 기관 모두 5.00점 만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2.79%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1.66%, 한식진흥원은 1.6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0.0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모든 기관이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 1.80%(2.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및 2017년에도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사관계(3점)

- 노사관계 계량지표의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A0(2.70점)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B+(2.40점), 한식진흥원은 C(1.8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법령 기준에 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적사항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실적보고서상 주요 실적을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채널 운영 후 운영 결과 및 환류 결과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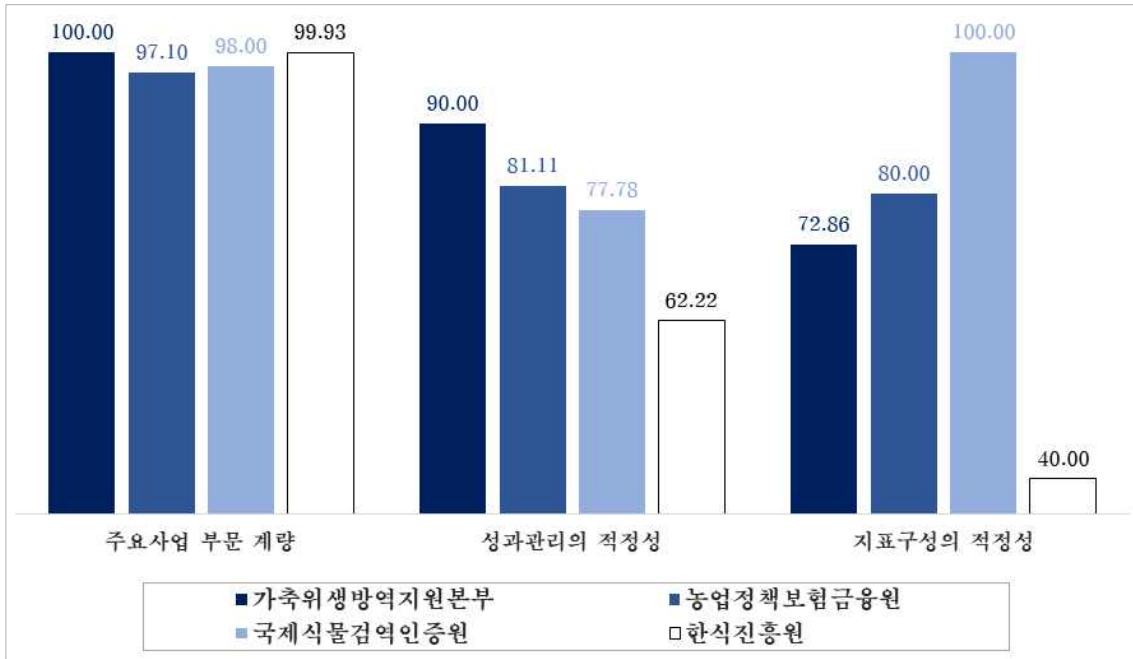
2 주요사업 범주

(1) 종합 득점 결과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55점 만점)을 살펴보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1.30점(93.27%)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50.40점(91.63%)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9.33점(89.69%) > 한식진흥원 43.98점(79.96%)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4개 기관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계량지표 30.00점, 비계량지표 21.30점, 합계 51.3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지표 29.40점, 비계량지표 21.00점, 합계 50.40점을 획득하였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 29.13점, 비계량지표 20.20점, 합계 49.33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에서 29.98점, 비계량지표에서 14.00점으로 합계 43.98점을 획득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중 주요사업 부문(계량지표) 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30점(100.00%)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이 29.98점(99.93%),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29.40점(98.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9.13점(97.1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의 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6.2점(90.0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4.60점(81.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14.00점(77.78%), 한식진흥원이 11.20점(62.22%)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의 총점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7.00점(100.0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5.60점(80.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5.10점(72.86%), 한식진흥원이 2.80점(40.00%)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주요사업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

(단위 : %)



○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100.00%) > 한식진흥원(99.93%) > 국제식물검역인증원(98.0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97.10%) 순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체 계량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여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한식진흥원 또한 1개 지표(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제외한 전체 계량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6.55점→30.00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락한 기관은 한식진흥원(30.00점→29.98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29.87점→29.4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29.71점→29.13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계량지표) 점수 종합>

(단위 : 점, %)

구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8.00 (100.00)	정책자금 현장검사 확대	6.00 (100.00)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7.93 (99.61)	한식 콘텐츠 활용도	10.00 (100.00)
2	시료채취(AI) 달성률	4.00 (100.00)	정책자금 검사의 품질향상 노력	4.00 (100.00)	안전사고 예방률	1.94 (97.00)	한식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	10.00 (100.00)
3	농장 예찰(예찰 실시 결과보고) 달성률	5.00 (100.00)	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 개선	3.43 (98.00)	AGM 예찰 활동률	5.00 (100.00)	홍보 효과도 (국내외 홍보 효과)	5.00 (100.00)
4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8.00 (100.00)	농업정책보험 보장개선 노력	3.50 (100.00)	수입제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	4.53 (90.60)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4.98 (99.60)
5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5.00 (100.00)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3.00 (100.00)	-	-	-	-
6	-	-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4.20 (84.00)	-	-	-	-
7	-	-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5.00 (100.00)	-	-	-	-
총점 (30)	30.00 (100.00)		29.13 (97.10)		29.40 (98.00)		29.98 (99.93)	
순위	1		4		3		2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1.00%)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0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67.33%) > 한식진흥원(56.00%)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가중치는 가중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점으로 설정된 상황 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는 2019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0.40점→21.3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21.10점→20.2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22.50점→21.00점), 한식진흥원(17.90점→14.00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도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16.20 (90.00)	14.60 (81.11)	14.00 (77.78)	11.20 (62.22)
지표구성의 적정성	7	5.10 (72.86)	5.60 (80.00)	7.00 (100.00)	2.80 (40.00)
총점	25	21.30 (71.00)	20.20 (67.33)	21.00 (70.00)	14.00 (56.00)
순위		1	3	2	4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2) 지표별 평가결과

- 4개 기관이 공통으로 계량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나, 비계량지표 중 지표구성의 적정성의 경우 기관별 득점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제외한 3개 기관 모두에서 지표구성의 적정성이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와 비교하여 득점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한식진흥원의 경우 평균 이하의 득점을 취득한 바, 기관의 비전과 전략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의 선정, 목표치의 도전성 확보 등이 더욱 심도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주요사업 계량평가(30점 만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8점 만점), 시료 채취(AI) 달성률(4점 만점), 농장예찰(예찰실시 결과보고) 달성률(5점 만점),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8점 만점),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정책자금 현장검사 확대(6점 만점), 정책자금 검사의 품질향상 노력(4점 만점), 농업재해보험 보장수준 노력도(3.5점 만점),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3점 만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수준 개선은 3.43점(98.00%)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은 4.20점(84.00%)의 득점을 획득하였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AGM 예찰 활동률(5점 만점)에서 만점을 획득하였고,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은 17.78점(98.78%), 안전사고 예방률은 1.94점(97.00%), 수입재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는 4.53점(90.60%)의 득점을 획득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한식 콘텐츠 활용도(10점 만점), 한식 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10점 만점), 홍보 효과도(국내외 홍보 효과)(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한식 문화관 운영 활성화는 4.98점(99.60%)를 획득하였다.

- 전체 기관이 다양한 환경적 제약이 발생함에도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여 높은 달성률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기관에서 임계치에 다다른 지표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점수 산출 계산식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성과관리의 적정성(18점 만점)

-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6.20점(90.0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14.60점(81.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14.00점(77.78%), 한식진흥원은 11.20점(62.22%)의 순으로 획득하였다. 한식진흥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주요사업의 성과관리가 대체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각 기관의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였으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미흡점이 나타나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매해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표를 상회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상무 기관과의 환류 활동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상부에서 확정되어 하달되는 업무만을 단순히 수행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환류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나, 자체평가의 분석 환류 노력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전사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가상모의 훈련의 내용이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각 사무소별 특징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검사 할인을 상향조정 시 국내 선박에 대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선박과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하더라도 차별화된 보완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한식진흥원은 한식진흥법 제정과 함께 향후 기관의 역할과 이에 대한 기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부터 이를 관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지표구성의 적정성(7점 만점)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7.00점(100.00%)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5.60점(80.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5.10점(72.86%), 한식진흥원이 2.80점(40.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개 기관 공통으로 주요사업 대표지표 선정을 위해 SMART 분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현재의 계량지표가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격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점이 존재했다.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격에 맞는 계량지표 개발 및 선정 방식에 대해 다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임계치의 다다른 지표의 경우 지표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9년도에 축산물위생사업 지표관련,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의 대체지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는데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다(수입축산물 불합격 판정기여도). 이 지표의 경우 사업목적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 힘들뿐더러, 곧 임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체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각 지표의 적합성은 SMART 분석, 전략연계성, 사회적가치 등을 판단지표로 구성해 종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를 대표성과지표로 활용해 프로세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신생기관이 아닐 시 결과단계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시한 지표가 결과단계의 지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표구성을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과 시사점,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기관설립목적과 연계되는 계량지표의 구성이 적절하며, 대표지표의 연계성 또한 잘 구성되어 있으나, 선박 AGM 검사지표의 경우 기관설립, 목적과 연계된 지표일지라도 총 30점 만점 중 67%에 달하는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점 구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식진흥원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성이 높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설정에 있어 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전문가 등의 외부참여자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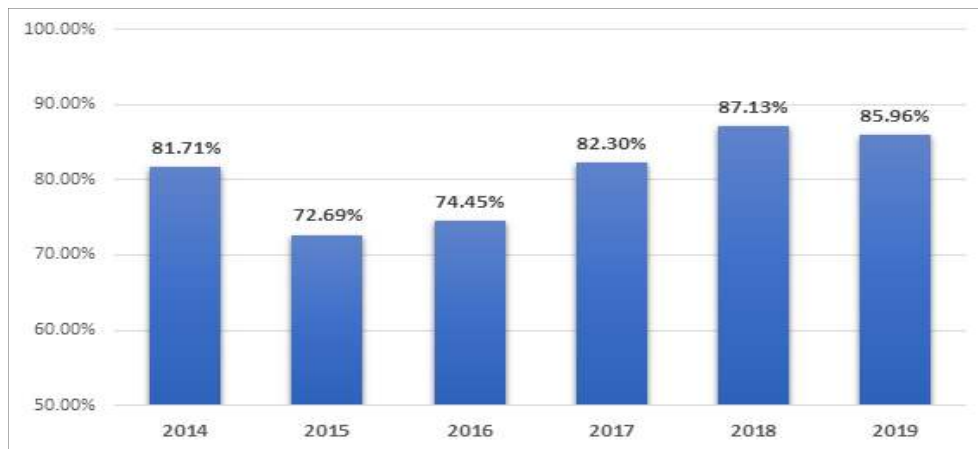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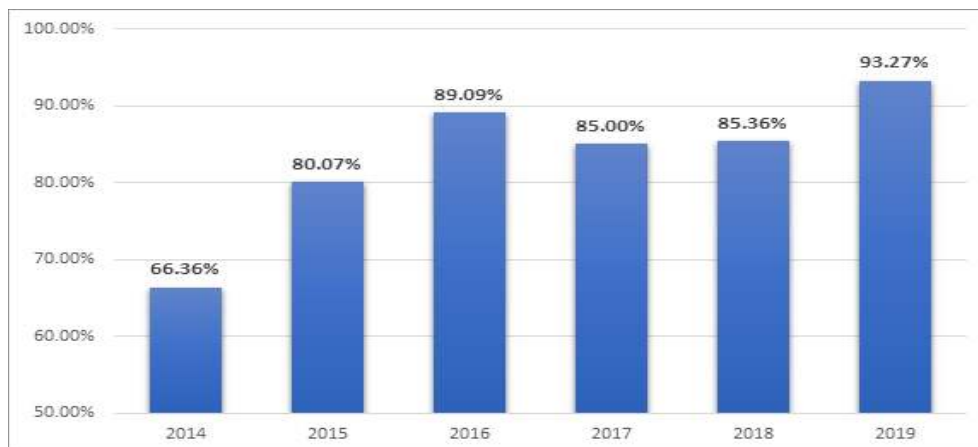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9.98점으로 '18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5년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였으며 '19년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4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사업 범주 또한 '14년 첫 평가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년도 경영관리 득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4대 지표 전체에서 모두 고른 성과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국민소통 및 혁신이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8.68/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업무 특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력 채용 특성의 분부별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직종 및 직급별 현장 소통을 확대한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규정 수립 및 관련한 활동에 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최근 3년간 98%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연말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직문분석을 위해 직무분류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요사업(51.30/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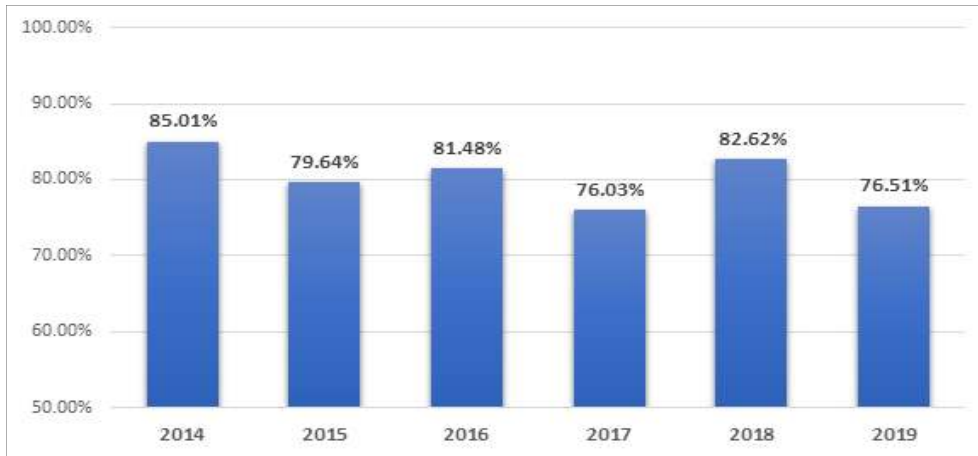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치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식용축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현행 평가지표에 근거하면 업무수행은 양적으로 우수하며, 업무효율 또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부 기관과의 환류 활동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상부에서 확정되어 하달되는 업무만을 단순히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련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주요사업의 대표지표가 바뀌지는 않았으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체 지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기관 목적에 맞는 대표지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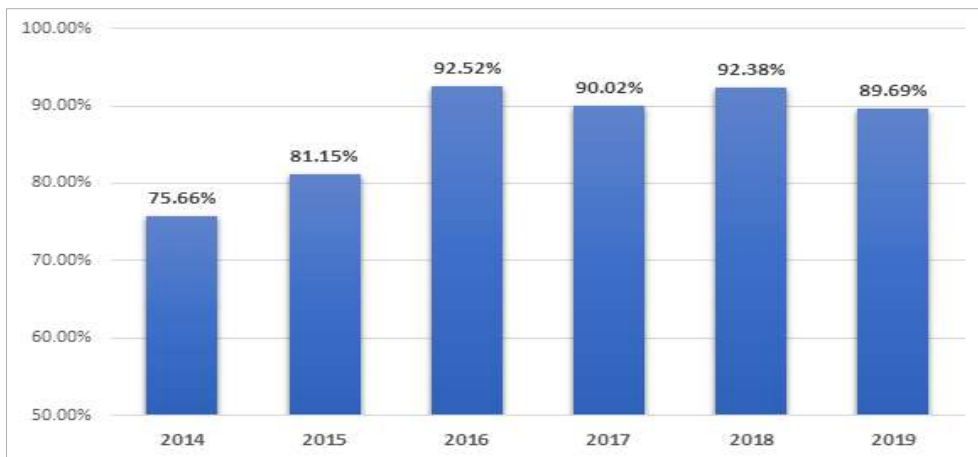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3.76점으로 '18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4년도 평가 이후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사업 범주는 평가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9년도 경영관리 득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9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가치구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의 득점이 가장 낮게 나타나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9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9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4.43/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질 개선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단위 활동 중심의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기 계획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혁신을 위해 환경 및 성과를 되돌아보고, '19년 나아갈 방향을 정해 노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경제 기반구축 부분에서의 혁신전략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9월 말 시점 예산집행률이 61.6%로 연말 예산집행 집중 현상은 없으나, 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전사 차원의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수행하여 '19년도는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 정도가 마련된 상태라고 판단되며 조속히 조직진단 결과 및 내부의 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49.33/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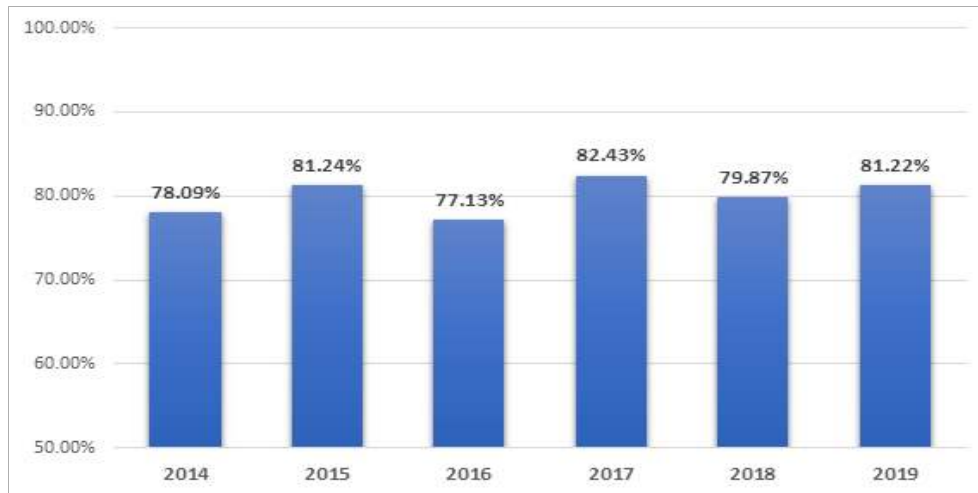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농업정책자금 관리 사업은 연간검사계획과 분기검사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어서 검사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 농업정책재해보험 관리 사업은 각 사업에 있어서 계획-집행-통제 단계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사업은 현재 모태펀드 회수 실적의 안정화 단계로 인해 도전적 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여 신규 지표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 부서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투명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과지표와 기관의 전략목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다 긴밀하게 제시하면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선정된 대표지표의 구성으로 볼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결과단계에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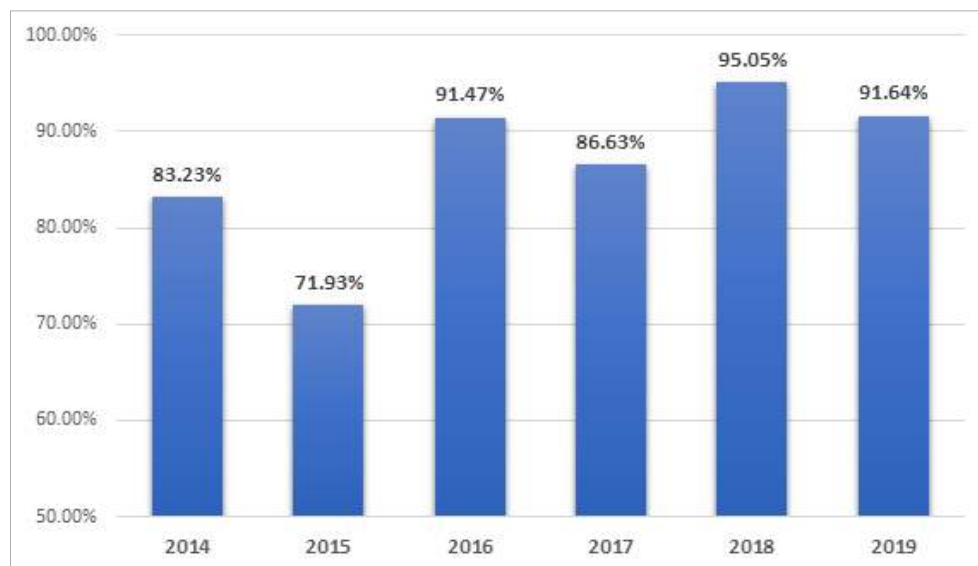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6.95점으로 '18년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평가도입 3년 차 시점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범주 및 주요사업 범주 모두 '14년 평가 이후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9년도 경영관리 득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9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 또한 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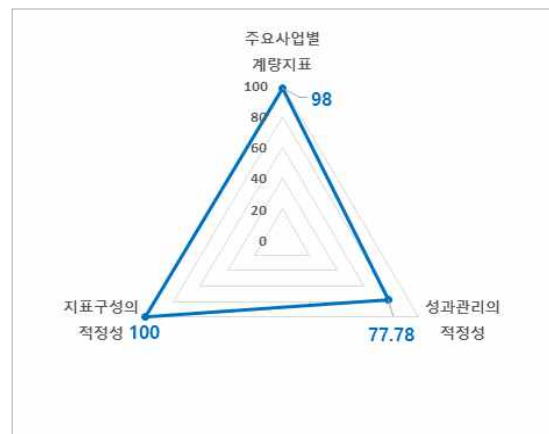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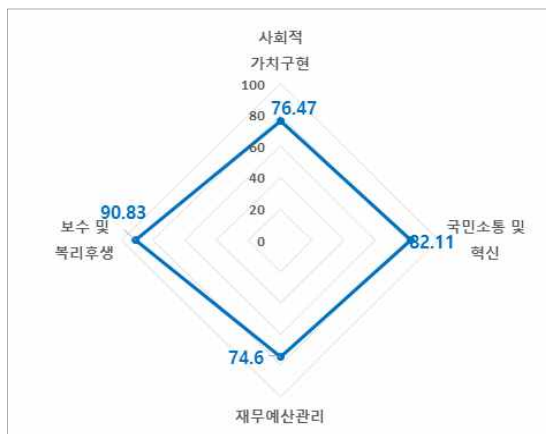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9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9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6.55/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업무수행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계절적 업무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성과는 바람직한 노력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근로형태별 일자리 창출 기여수준 측면에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과제를 통해 의도했던 목적들을 달성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행안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참고해 기관의 적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규정 등을 수립하고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정부 보조금이 없으므로 기관 예산운영 특성상, 과편성 및 이월금 발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전년도 권고사항과 같이 지금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것인지 선제적 고민 및 대처가 요구된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나, 조직 인력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50.40/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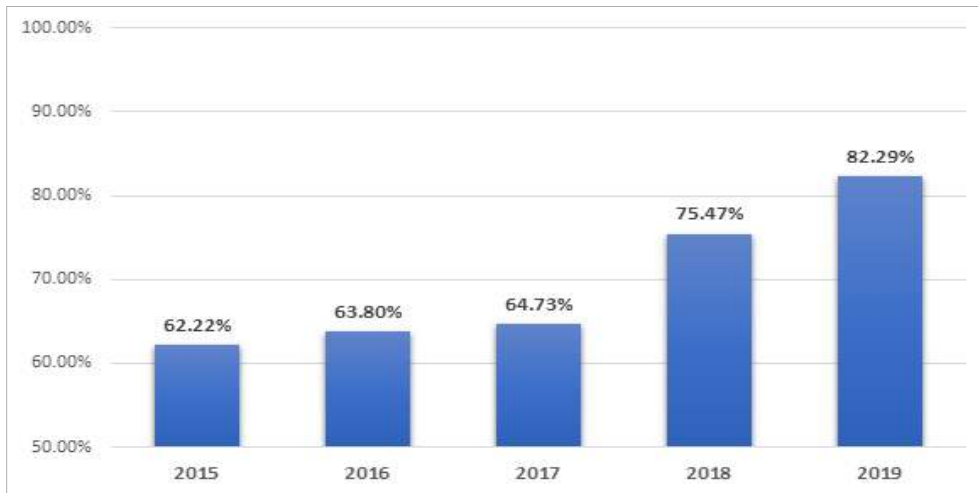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선박 AGM 검사 사업은 상황별로 선박 위험 정도를 차등화하여 조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AGM 예찰 방제 사업은 국제적 경쟁력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은 수입 재식용 식물에서 병해충 검출 시 신속한 방제조치를 취하여 외래 유입 병해충의 국내 정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검사 할인을 상향조정 시 국내 선박에 대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선박과의 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하더라도 차별화된 보완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지표구성을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과 시사점,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기관설립목적과 연계되는 계량지표의 구성이 적절하며, 대표지표의 연계성 또한 잘 구성되어 있다.

4 한식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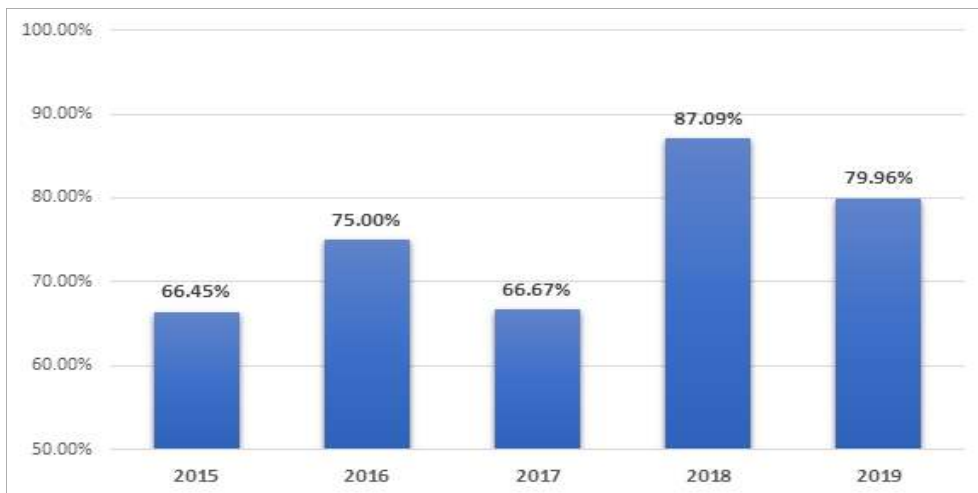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1.01점으로 '18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15년도 평가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19년도 평가에서는 타 기관 대비 준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범주는 매년 등락을 보여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량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진흥원 '19년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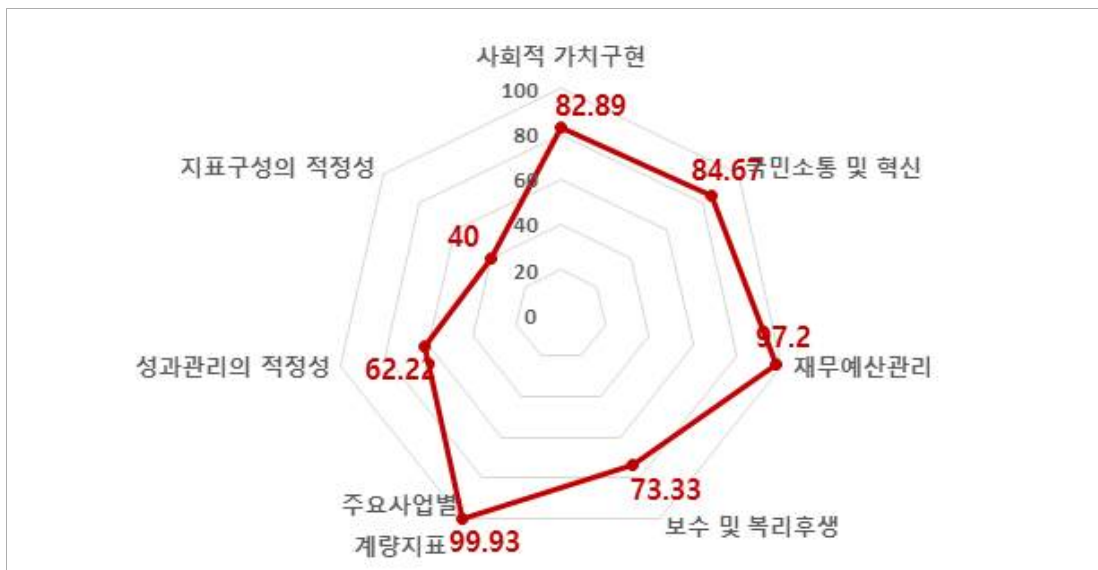
<한식진흥원 '19년도 주요사업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득점으로 나타나 지표구성 및 성과관리에 노력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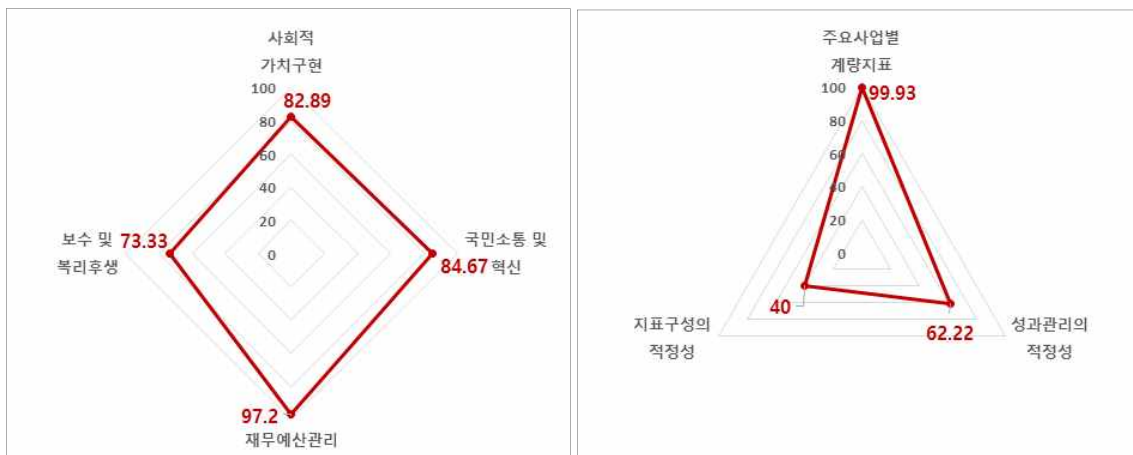
<한식진흥원 '19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한식진흥원 '19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7.03/45점)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중장기 로드맵 등 일자리 창출 계획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성과의 제시에 있어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리체계의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소통 및 혁신에 대한 평가결과, 각 분과별 구성원의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업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고서상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연계성과 성과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적극행정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무예산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예산집행률이 과거 대비 상향 되었으나 12월의 예산집행률이 30.5%, 4/4분기 집행률이 50.23%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직원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소통 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와 해결 주체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주요사업(43.98/55점)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의 목표치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제공 건수라는 단순 측정치가 평가의 주목적과 주요사업과의 연계성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복합지표를 활용하여 점수 계산식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서 사업 운영과 성과를 개선하는 절차/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환류를 통해서 사업 전반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개선 이루어졌으며,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전년도에서도 지적한 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성이 높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 설정에 있어 내부의 의견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전문가 등의 외부참여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

Ⅲ.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2.40	3	3.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3	2.68
	(3) 안전 및 환경	2	B+	1.6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3.00
	(5) 윤리경영	3	B0	2.10		
	2.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B+/ B0/B+	2.30		
	(2) 국민평가(88.14점)				4	3.53
	(3) 경영정보 공시(별점 17점)				2	1.33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94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B0	2.80		
(2) 충인건비 관리				5	5.00	
(3) 노사관계	3	B+	2.40			
경영관리 합계(38.68)	20	-	15.2	25	23.48	
주요 사업	1. 가축방역사업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8	8.00
	(2) 시료 채취(AI) 달성률				4	4.00
	(3) 농장 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5	5.00
	2. 축산물위생사업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8	8.00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5	5.00
	3.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16.20		
	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5.10		
	주요사업 합계(51.30)	25	-	21.3	30	30
총계			89.98			

1 경영관리

①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9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8년도 추가된 신규 평가지표로, 2018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은 2017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목표를 누적 달성하였다. 전환심의위원회, 전환협의체를 통한 전환절차의 투명성,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인정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노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증원 여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발전이 요구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추진 전략별 중기계획의 구체화를 통하여, 전략의 실행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시 증원인력 확보, 안전 관련 증원인력 확보 등과 같이 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업무성과 제고, 정부 정책의 적극적 수용 등의 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일자리 지속성 확보를 위한 5개년 증원계획 수립 노력 및 퇴직 예정 인원을 고려한 채용계획 수립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사업 확대를 통한 인력증원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과 단기 일자리 인력 Pool 운영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은 일자리 창출 지속성 확보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 전략별 중기계획수립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근로 형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수준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실행을 위한 전략체계 타당성을 제고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원 확대 노력 등 대내외 관련 부서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의 질 개선 관련 설문조사 항목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89.33	89.33	3.00	2.68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 결과 법정 의무 고용률 대비 92.94%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에 1.39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86%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에 1.29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1.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1.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 추가된 지표로, 2018년도 2.36점, 2019년도 2.6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대비 92.94%,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86.00%를 달성하였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되었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해 지표에서 정의한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청년, 고졸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강화 노력과 함께 신분별 차별요소 해소 노력으로 이직율이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 인력 채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채용, 교육, 인사, 복지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 발전이 요구된다.
- 공정 채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및 전략별 추진과제 선정 노력과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차별 요소 개선 노력, 채용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미흡 사항의 개선 노력(인사 규정 및 업무처리준칙)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고졸 인재 채용 강화 및 맞춤형 채용 설명회를 통한 적극적 채용 노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인사 분야별 여성 인력 채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운영 노력과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통한 무기계약직 이직률 감소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관리자 확대에 관한 중기 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중간관리자 확대 필요성 분석 및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기관의 업무 특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력채용특성의 본부별 차별화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세부평가사항에 대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직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관리 노력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은 타당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지침, 직종별 업무 매뉴얼 작성을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 노력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본부별 안전관리 요소의 차별화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안전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행 능력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위험 요인 개선 노력,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정보보안 전담부서 신설 노력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기관차원의 안전관리 지침 제정/개선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업무 매뉴얼 적절성 또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체계와 중기계획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정보보호 전담인력 규모의 충분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기관 자체의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 훈련 노력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총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세부 내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비율, %)	가중치
필수 선택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3~0.6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3~0.6
기관 자율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구매실적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3~0.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비 100%	집행실적	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결과를 준용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생산품, 여성 기업 생산품, 장애인 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다. 최근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80.00%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7.6% 달성,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17.3%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7.90% 달성, 기술개발생산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6.00% 달성,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경상경비의 4.00%를 달성하였다.
- 전체 항목 중 미준수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시되는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을 자체판단한 결과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의 보고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 대상

이 부패/부정, 인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윤리경영 대상 범위 및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며, 이는 타 기관 징계/경고 사례를 고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전 업무를 대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노력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개념적 기준을 정립하여, 내부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안전감찰 등 윤리경영 실행체계 강화 노력과 직급별 토론, 전직원 설문조사 등 직원 참여형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문서보관·보전 사무처리 지침 제정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윤리경영 대상범위/관리요소의 적절성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및 현장업무 관련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윤리경영 구현 노력 강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판단 개념 및 기준이 검토되어야 하며, 인권준중서약서 외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준중 관련 노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혁신 방향과 혁신목표를 세우고 세부별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18년 대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기관이 추구하는 미래상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여 긍정적이다.

-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 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인정되며, 일반 국민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혁신추진위원회, 가축방역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점이 인정된다. 현장 릴레이 소통, 주니어보드간담회, 소통 워크숍 등 직종 및 직급별 현장소통을 확대해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돋보인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지침 제정 및 구성을 통한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 향후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규정 등을 수립하고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 직종 및 직급별 현장소통을 통해 접수된 71건의 기관장 건의 조치사항의 경우 보고 서상에서 “’19년”의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심의의견 피드백 결과 ’19년 성과로 확인되었는데 향후 성과제시 시에는 관련 날짜도 함께 기입하기를 권장한다.
- 이해관계자(임직원노조, 축산농가, 관계기관, 지자체, 국민 등)별 소통전략 수립, 소통 채널 구축 및 소통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련 추진성과 또한 우수한 편이다.
- 혁신추진위원회, 가축방역자문위원회, 민관합동 T/F 등 각각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그로 인해 ’19년 혁신추진과제 선정 및 중간점검 환류를 통한 기관의 혁신계획 수립, 가축방역 자문 및 SOP개정을 통한 초동방역팀의 안정성 확보,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반영한 조류인플루엔자 SOP개정으로 소독제 사용요령 보완 등의 성과를 올린 것이 돋보인다.
- 다만 가축방역사업 국민 모니터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국민의 니즈를 파악했는지, 어떠한 운영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화되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회 운영을 어떻게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사업특성에 맞는 혁신과제가 수립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철저한 방역조치로 세계 최단기간(24일) 확산방지 조치에 성공하였으며, 농장발생 14건 중 조기발견 3건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에 기여하는 등 기관설립의 취지와 부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100명이 넘는 방역일자리(무기직)를 창출해 주요사업의 업무향상도를 증진하였다.

-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작성 시, 2019년도 실적보고서의 33p를 예시로 들면 단순히 배경과 실적을 서술하는 것이 아닌 배경→추진과제 선정 프로세스→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실적('18년 대비 '19년에 이룩한 성과) 등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0”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국민평가(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8.14	88.25	4.00	3.53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8.13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5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5년도 85.20점, 2016년도 82.13점, 2017년도 83.80점, 2018년 89.30점에서 2019년도 88.13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현장평가 진행 이후 공고되어, 피평가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불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17	66.5	2.00	1.33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9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9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17점으로 평점 66.5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3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총 17점으로 2018년도 9.5점 대비 하락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8.80	98.80	5.00	4.94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8.8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9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예산집행률은 98.80%로 최근 3년간 98%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다('17년 99.306%, '18년 98.498%). 예산 이불용 및 전용이 없으며, 예산(안) 요구를 부서 및 도본부의 실수요를 기반으로 세부 실수요 검증을 통해 편성해 집행단계에서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본 결과, 12월의 예산집행률이 22.5%, 4/4분기 집행률이 44.93%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된 것이 확인되었다. 집행률 실적은 우수하나 계약 잔금 등이 12월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 예산집행률이 98.80%로 우수하며, 회계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속적으로 실시된 점은 긍정적이다.
- 연내 발생이 예상되는 계약 잔액 및 집행 잔액에 대해 사용계획을 보다 체계화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직문분석을 위해 직무분류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 내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봉제 및 직무급 제도에 대해 검토하여 ① 직무분류체계와 인사제도 간 연계성 미흡, ② 비 보직자 직급별 단일등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부터는 직무분석·평가를 통해 직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사공동 TF팀을 구성하여 성과평가규정 정비, 간부직 대상 상향평가, 실질적 이의신청제도 등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모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19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명으로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2024년까지 임금피크제 재원조달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 현장직 대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현장직 업무 특성(살처분)을 반영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되며 대상자 만족도도 90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 인사평가제도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적보고서 및 추가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의견 중심으로 도출된 주요 안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 주체(가축본부, 상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적보고서 상 주요실적을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상에는 스마트워크센터 추진실적으로 참여 인원 4명, 실시 건수 11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평가 시 확인 결과 신청 4명, 실시 2건으로 확인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평가연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1.80% 이하	0.04%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04%로 기준치 1.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04%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1.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5점 만점에 5점을 획득하였다. '17년, '18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2015년도 2.457%, 2016년도 2.815%, 2017년도 0.403%, 2018년도 1.17%, 2019년도 0.04%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1.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인건비 인상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소통채널별 피드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표(노사관계)의 핵심은 안전 발굴과 안전에 대한 해결 및 피드백으로 소통채널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다. 노사협의회 본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창구로 구체적인 결과의 피드백 강화가 요구된다. 일과 후 카톡이용 업무지시 적발 및 점검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법적 의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전국 단위 현장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본부 노사협의회 분회를 신설하여 현장의 소통을 강화한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협의회 분회는 3월, 5월, 8월, 11월 운영하여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시점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퇴직직원 면담제도를 신설하여 노사관계 강화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퇴직자의 경우 본부의 개선내용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의견제시가 가능함에 따라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실적보고서 상 주요실적을 정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적보고서 상 ‘조직 전반 안전진단 실태조사 실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안전진단 실태조사는 ’18년에 실시하였다. 따라서, 보고서 상에는 ’18년 안전진단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추가보완 작업 후 ’19년 2월 현장 배포하였으며 ’19년에는 현장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였다고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19년 연차사용률은 68.7%로 다소 낮은 편이다. 연차 저축제를 운영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가축방역사업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 (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437,329	471,797	100.00	8.00	8.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채취(4대 질병) 목표치 437,329건 대비 실적치 471,797건으로 목표치 107.8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8.00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시료 채취(4대 질병) 2015년도 목표치 635,888건 대비 실적치 677,090건, 2016년도 목표치 560,330건 대비 실적치 606,751건, 2017년도 목표치 339,532건 대비 실적치 371,131건, 2018년도 목표치 342,965건 대비 실적치 366,576건, 2019년도 목표치 437,329건 대비 실적치 471,797건을 달성하여 지속해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2019년 하반기 경기, 인천 및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여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환경적 조건에서도 목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치를 넘은 108%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목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9년 목표치가 2018년과 비교하여 94,364건(약 27.5% 상승) 늘어났으며, 해마다 위 비율로 검사물량을 높게 책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부 기관과 논의하여 업무 목표치를 적정선에서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상부 기관과 논의하여 구제역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축중에 ‘사슴’ 을 포함 시킬 것을 권하며, 현장에서 NSP항체 존재 유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검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지역별 흑염소 도축장에서 사슴 도축 전 채혈 가능

(2) 시료 채취(AD)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 (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136,760	144,763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 예찰 검사 추진 계획’ 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AD)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채취(AD) 목표치 136,760건 대비 실적치 144,763건으로 목표치 105.8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시료 채취(AD) 2015년도 목표치 112,310건 대비 실적치 106,578건, 2016년도 목표치 115,345건 대비 실적치 124,270건, 2017년도 목표치 110,675건 대비 실적치 139,567건, 2018년도 목표치 131,715건 대비 실적치 146,373건, 2019년도 목표치 136,760건 대비 실적치 144,763건을 달성하여 2016년부터 지속해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 2019년도 전체 136,760건의 시료 채취를 목표로 하였으나, 146,373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목표대비 107.3%의 높은 실적 달성하였다. 2017년 126.1%, 2018년 111%의 실적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실적 달성하였다. 본 사업은 상부 기관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하여 환경적 변화(지역 및 계절)를 반영한 시료를 채취해야만 사업추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사업내용 확정 전 상부 기관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하여 환경적 변화(지역 및 계절)를 반영한 시료 채취 목표를 확정된 후 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며, 2019년도 지적한 사항에 해당한다. a. AI virus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북방 철새가 경기도 북부지역 해안가에 도착하는 시기가 9월 하순부터 10월 초순이다. b. 철새가 그 이후

해안가를 따라 남해안까지 점차 남하하는 관계로 분변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장소가 철새의 이동 동선에 맞추어져야 한다. c. 최대한 어떻게 다양한 종류의 철새 분변을 채취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 야생조류 포획 검사는 수반되는 수고 및 지출되는 경비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가 요구된다.

(3)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예찰실시결과 보고실적/ 목표(계획) 건수 X100	목표 대 실적	5,196	6,508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장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목표치 5,196건 대비 실적치 6,508건으로 목표치 125.2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농장 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2015년도 실적치 6,404건, 2016년도 목표치 8,403건 대비 실적치 7,159건, 2017년도 목표치 5,016건 대비 실적치 6,252건, 2018년도 목표치 5,784건 대비 실적치 6,537건, 2019년도 목표치 5,196건 대비 실적치 6,508건으로 목표치 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 2019년도 전체 5,196건의 예찰 목표를 수립 후 6,508건의 예찰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125.25%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농장단계에서의 충실한 예찰 업무수행 결과로 국내 가축사육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인지와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에 많은 기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19년 하반기 이후 경기도 및 강원도 북부지역에의 야생의 돼지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지역에서의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한 예찰을 더 강화할 것이 요구되며, 2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북방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시기에 맞추어 경기도 북부지역 해안가부터 남쪽으로 중/소규모 조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며, 20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축산물위생사업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보고 건수/도축검사 두수) x100	목표부여 (편차)	34.02	48.97	100.00	8.00	8.00

나. 평가내용

-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축산물위생사업 달성을 목표치 34.02건 대비 실적치 48.97건으로 목표치의 143.94%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8.00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축산물위생사업 달성률 2015년도 21.775건, 2016년도 28.190건, 2017년도 30.220건, 2018년도 32.328건, 2019년도 48.9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실적이 향상되었다.
- 도축검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개선 부분은 피교육자들의 의견수렴과 개선 노력이 인정되며 ASF 같은 신종 질병 실험실 검사 교육 도입은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 다만, “도축 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이란 평가지표는 이상(폐기) 대상을 좀 더 정량화하여 축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설정 바라며, 외국의 도축장에서 수행하는 각종 인수공통 전염병이나 재난형 질병의 POCT를 도입하여 축산물 위생이 향상 되도록 하는 정책적 변경이 요구된다.
- 도축검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자료를 분석해보면 수강자들의 의견수렴과 개선사항 발굴 노력이 인정된다. 특히 도축검사 경력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교육 내 실화를 추진하고 ASF발생으로 실험실 검사 과목 신설 등이 주목된다. 또한, 만족도가 낮은 교육과정은 제외하여 도축검사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가 예상된다.
- 축산물 위생사업 중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은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세부측정내용으로 부적절하다 판단되며, 아울러 식용 축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평가지표 설정이 요구된다. 관능검사의 경우 주관적 판단보다 정량화 방안을 검토하고, 닭이나 오리 도축장에서 살모넬라를 CCP로 정기 검사를 하듯이 축산물 위생 향상과 AI 등 재난형 질병 현장검사 방안 지표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2) 수입 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 보고 건수/현물검사 건수) x100	목표부여 (편차)	8.48	8.50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현물검사(수입축산물) 이상보고 향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목표치 8.40% 대비 실적치 8.50%로 목표치의 101.19%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현물검사 이상보고 적발률은 2015년 7.191건, 2016년 7.846건, 2017년도 8.604건, 2018년도 8.029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도에는 8.50건으로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는 평가지표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축산물을 통한 AI, ASF 유입 사례로 판단해 볼 때 현물검사 시 표시검사의 존하는 수입금지 지역의 품목 검색보다는 3자 무역이나 원산지 표기만으로는 원료 축산물의 추적이 불가능한 가공 축산물을 통한 질병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ASF와 같은 해외유입 전염병을 혼합한 체계적인 항원검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현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체계는 서류 검사, 컨테이너 검사, 표시검사, 관용검사, 기타검사, 이상보고 순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현물검사 시 표시검사에서 수입금지 지역의 품목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검역 본부에 이상 보고를 하고 요청 시에만 시료채취를 수행하고 있어 해외 악성 질병의 유입에 대한 실시간 대응력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③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 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상부 기관과의 환류 활동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상부에서 확정되어 하달되는 업무만을 단순히 수행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수립단계로부터 상부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수량 및 범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 AI 분변환경적 요소(지역, 계절 등)를 반영하여야만 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사업 담당 상부 기관과의 환류 활동 강화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드론 이용 방역 서비스 고도화 사업과 야생조류 분변 채취 지침은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IT 기술을 이용한 축산물 위생 자료 공유 사례는 정부산하 교육기관 외에도 수의대에도 공유되어 교육적 고도화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드론 이용 방역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AI 예찰사업 중 AI 검출률 향상에 기여 가능한 시료채취 지형 분석·공유와 질병 발생 시 초동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 범위를 영상자료 제공에서 시료채취 같은 보다 적극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개발 노력이 아쉬움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직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단계별 전문화(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 매해 업무량이 증가함에도 모든 사업의 목표를 상회하여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나, 전 직원 대상 업무수행에 대한 만족도 의견수렴 후 단계별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가축방역사업 및 축산물 위생 사업 대상 자체평가와 관련된 환류 활동은 적절히 수행되었다. 다만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도본부 협의회에도 도본부 미설치 지역(제주)과 같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 운영이 요구된다.
- 경영평가단 지적(권고)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 사례를 가축 방역과 축산물 위생 분야에서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방역사업 대상 구제역 방역사업에서 구제역 발생에 의한 국가 이미지 실추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공성 제고 노력이 인정된다. 또한,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한 국민 참여로 방역 정책 개선 노력이 우수한 사례라 평가된다.
- 사회적 가치 부여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역 정책 개선 노력이 차별화된 방역 서비스 기반 마련 사례라 평가된다. 그러나 공공성 제고와 국민참여 사회적 가치 제고의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전년 실적대비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발굴 노력이 더 요구되며, 전문가 Pool의 다양한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18년 성과평가 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대표 사업인 가축 방역사업 및 축산물위생사업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세부적으로 가축 방역사업의 3개 지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축산물위생사업의 2개 지표는 사업 성격에 적합한 계량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축의 이상 상태(질병 여부)는 농장에서의 사양관리 상태에 따라서 가축건강에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상 보고율을 지원본부의 실적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보고 향상도는 검사원의 숙련도 및 장비 등의 정확도와 관련되지만, 주로 수행하는 관능검사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수입물량 증가, 다양한 수입품목에 대비한 검사방법, 시료 채취, 업무의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19년에 축산물위생사업 지표관련,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의 대체지표를 농림부에 제출하였는데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다(수입축산물 불합격 판정기여도). 이 지표의 경우 사업목적을 대표하는 지표로 보기 힘들뿐더러, 곧 임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체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가 바뀌지는 않았으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체 지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향후 기관 목적에 맞는 대표지표를 발굴할 것을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A0”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 기시료채취(AD)달성률, 농장예찰달성률 지표의 경우 전년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제시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통시장 중기상의 축소 등 목표치가 감소하였는데 보고서에 사유가 없다. 향후 상향지표, 하향지표별 사유를 기재하기를 권고한다.
- 성과지표의 목표를 전년 실적대비가 아닌 전년 목표대비로 설정이 되어 있다. '18년 시료채취달성률 목표는 131,715, 실적은 146,373이나, '19년 목표는 실적대비가 아닌 목표대비 증가인 136,760으로, 실적은 144,763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다면 목표달성도는 100%가 나올 수 있으나 도전적인 목표치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향후 전년 실적대비 감소 사유와 함께 실적치에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2.10	3	3.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0	1.40	3	2.10
	(3) 안전 및 환경	2	B0	1.40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3	2.39
	(5) 윤리경영	3	0	0.00		
	2.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A+ /B+	2.40		
	(2) 국민평가(81.04점)				4	3.24
	(3) 경영정보 공시(별점 4.60점)				2	1.67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53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B0	2.80		
	(2) 총인건비 관리				5	5.00
(3) 노사관계	3	B+	2.40			
경영관리 합계(34.43)	20	-	12.5	25	21.93	
주요 사업	1. 농업정책자금 관리					
	(1) 정책자금 현장검사 확대				6	6.00
	(2) 전액자금 검사의 품질향상 노력				4	4.00
	2. 농업재해보험 관리					
	(1)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수준 개선				3.5	3.43
	(2) 농업재해보험의 보장개선 노력				3.5	3.50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3	3.00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5	4.20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5	5.00
	3.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18		14.60		
4.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7		5.60			
주요사업 합계(49.33)	25	-	20.2	30	29.13	
총계			83.76			

1 경영관리

①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9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8년도 추가된 신규 평가지표로, 2018년 2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 2019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없어 전환 인원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누적으로 평점을 부여하였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외부 전문가 협의기구 운영 등을 통한 전환 절차의 투명성,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인정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정현원차 관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기간제, 대체인력 등 다양한 고용형태 적용으로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는 노력은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자체고용,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측면에서 업무영역확대 등을 고려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계획의 체계성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노사 공동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체계 및 PDCA 기반 일자리 전략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고졸인턴 신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육아휴직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손해평가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벤처펀드 등 특수목적펀드 조성 노력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전략과제별 중기계획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체계 개선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분야 고용창출 여력의 구체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의 적극성 강화와 일자리 창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절차적 정당성 제시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손해평가 업무영역 확대 가능 품목 식별 및 연차별 확대 노력 강화와 기관의 노력 분야에 결과제시 관심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70.00	70.00	3.00	2.1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의무 고용률 대비 40.29%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에 0.60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우선 고용률 대비 216.67%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에 1.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1.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1.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장애인 의무 고용 등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관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8년도 추가된 지표로, 2018년도 2.70점, 2019년도 2.10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40.29%,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216.67%,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은 용역 대상자가 없어 세부 지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노력이 단위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기계획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관의 업무특성 상 평가편람의 세부 평가 요소 중 수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노력 및 판단 결과의 제시가 바람직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단계적 발전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양성평등에 인사관리체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차이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의견 조사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공정채용을 위한 채용 주체별 위험요소를 검토하였고,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을 고려하여 채용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적자원 확보 노력을 통한 청년, 고졸자 채용 노력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사측면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및 여성 역량강화 노력, 기능직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도 우수하다.
- 그러나 사회형평적 차원에서 장애인, 유공자, 노령자,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등에 채용 적절성 검토 및 채용 노력 강화가 필요하며, 지표적합성을 제고하여 세부평가 내용이 요구하는 성과 제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관의 업무 특성 고려하여 양성 평등 개념의 인력관리를 지향하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기차원 여성 관리자 비율 20% 설정의 논리적 타당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직군별 차별요소 인식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 시행 및 발전방안 수립 노력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요구하는 세부 평가내용에 적합한 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세부항목에서의 노력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농금원의 재난 범위를 유형별로 구분·관리하는 노력은 타당하며,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수행한 모든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노력 강화가 필요하며 내부 역량에 대한 강약점 또는 장단점 요소에 대한 구체적 식별 및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 안전관리 대상유형 구분, 유형 분야별 대응전략 수립, 대외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점, 국민(농업인) 안전대책 수립 지원을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내근자 및 출장자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한 점, 개인정보 컨설팅을 통한 처리단계별 내부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한 점, 정보화 용역사업 주요 항목별 월별 점검을 실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기관 자체의 안전관리체계(조직/담당자의 기능 및 업무분장)가 정립되어야 하며, 위험성 평가결과 및 대응방안 등 활동실적에 대한 주요사항이 제시(명확성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체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 및 대응 노력의 제시 체계 강화 및 정보보안관리 전담 부서/인력 및 관리체계의 구체적 제시, 사이버 침해 시나리오 개발 및 대응체계 발전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업무 중요성 대비 전담인력의 충분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 자율선택지표 총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79.67	79.67	3.00	2.39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세부 내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비율, %)	가중치
필수 선택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3~0.6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3~0.6
기관 자율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구매실적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3~0.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비 100%	집행실적	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중 2.22%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중 0.52%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중 0.16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중 7.45%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실적 조사 결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품목 총 구매액의 7% 중 5.42%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31점을 획득하였다. 재정 조기 집행실적 조사 결과,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비 100% 중 63.8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3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4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86.12%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2.22% 달성,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8.42%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0.52% 달성, 기술개발생산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7.45% 달성,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은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5.42% 달성,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비 63.80%를 달성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구매 실적은 구매 목표를 100%로 달성하였으나,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시가 필요하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 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견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 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 윤리규범체계 강화, 윤리경영 실행조직 운영 등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상시학습시스템을 통한 윤리경영의 내재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경영 대상이 부패/부정, 인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윤리경영 대상 범위 및 요

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며, 기관이 노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 성과제시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은 효과적 업무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요소로 적정성에 대한 개념적 기준을 정립 하여, 과도한 내부건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부분, 국민 등 외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윤리경영 실행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청원제도 도입을 통한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권침해 요소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인권경영 영향평가를 진행한 점,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정립 등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포함하여 윤리경영 대상범위/관리요소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관의 업무 특성 고려 사업추진, 조직, 인사관리 상의 비윤리적 요소 식별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 유형별 감사 횟수의 적정성/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판단 개념 및 기준이 검토되어야 하며, 내외부 인권존중을 위한 고충처리체계가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기관 차원의 경고로 인하여 “0” 으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지배력,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금융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과제와 혁신방향, 목표를 세우고 기관을 운영하였으며, '18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이던 시

민참여단의 운영, 혁신추진계획의 구체화,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강화 등에 대해 조치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 점이 긍정적이다.

- 기관의 혁신을 위해 환경 및 성과를 되돌아보고, '19년 나아갈 방향을 정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혁신 TF를 구성해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참여혁신단(내외부 12명)을 운영해 의견수렴을 하는 등 혁신목표인 농금융 혁신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실행 중에 있다.
- 다만, '18년 지적사항인 기관미래상 도달에 필요한 혁신과제를 2개 제시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고 제시하였는데, 제시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20년 기관운영 시 반영할 것을 권장한다.

1. 혁신전략체계 재정립 - 공정경제 기반구축부분

기관에서 제시한 공정경제의 내용이 용역계약 시 선금을 70% 지급하고, 원가계산을 통해 실제 드는 비용을 산정한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과연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공정경제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협력이익공유, 블라인드 채용정책 등이 있으므로 용역계약으로 한정 시 기업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관련기업 제외, 수의계약의 공정성, 선정위원의 공정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혁신전략체계 재정립 - 적극행정 확산

기관에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제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적극행정 기반마련과 별개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적극행정은 규정마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적극행정 면책사유가 제시되었는지, 소극행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예방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참고해 기관의 적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규정 등을 수립하고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 '19년 새로운 성과로 제시한 두 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보여 보고서에서처럼 혁신추진계획을 100%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내용의 경우 추후 보완하기를 권장한다.
- 대내(총괄부서, 시민참여혁신단 등), 대외(농림 유관기관 혁신네트워크, 사회공헌참여단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5차

에 걸친 전담조직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려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농림 유관기관 간 활성화(협업)을 통해 모임을 실시, 많은 회의를 주도해 여성과 장애인 인력활용 등을 고민하였으며, 시민참여혁신단을 통해 사회형평적 인사보수제도 실현과제를 개선하였으며, 손해평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요사업의 방향성 등을 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농식품모태펀드 투자 및 홍보확대 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 '18년 대비 '19년에 자펀드 결성을 확대하였으며, 정부·유관기관에서 여성가입확대 방안 의견을 받아들여 재해 골절 보장 특약을 도입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논콩 표준 수확량을 팔콩 대비 1.1배 상향조정하는 등 소통, 참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품 다양화를 위해 상품설명회, 간담회, 현장교육 등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취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개선한 노력이 보인다.
- 기관의 중점추진과제로 농업정책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농가경영안전망 확충,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급 등을 제시하였는데, 기관의 업무와 연계성이 높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해 주요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 구간 보험료율 격차가 큰 단감 뚫은감 대상 요율상한제 적용 추가, 시범사업 품목 중 시설미나리 본사업 전환 등을 개선하는 등 성과가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성과지표인 농가소득안정기여율이 100% 이상 달성되었다고 제시하였는데, 실적대비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닌 목표대비 목표를 정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즉, '18년 실적이 38.4%였으나 '19년 목표를 30.6%로 제시한 후 성과를 100%로 적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는 실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상으로 볼 시 목표달성도의 도전성에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C”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A+”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국민평가(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1.04	81.00	4.00	3.24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81.04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2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도 고객만족도 점수는 81.04점으로 2018년도 77.1점과 비교하여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현장평가 진행 이후 공고되어, 피평가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불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4.60	83.50	2.00	1.67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9년도 경영정보 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9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4.6점으로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67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총 4.60점으로, 2018년 11.5점 대비 감소하였다.
-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2017년 6.5점, 2018년도 11.5점, 2019년 4.60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 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0.62	90.62	5.00	4.53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0.62%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5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2015년도 67.04%, 2016년도 82.45%, 2017년도 90.73%, 2018년도 93.15%에서 2019년도 90.6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두 건의 연구개발비 금액이 이월되는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90.62%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실수요 예산 편성단계에서 각 사업 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불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성단계에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19년 8월에 예산집행관련 업무협의회를 실시한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예산적정성을 위한(기관장 주도 편성위원회 등) 다양한 운영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 예산 집행 단계에서 모니터링의 체계화가 요구되며, 주기적인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사업 담당자들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 보완·조치계획을 요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9월 말 시점의 예산집행을 확인하였으며, 9월 말 시점의 집행률은 61.6%로 전년대비(41.5%) 20.1%p 높게 나타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예산집행관련 업무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예산사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예산편성단계에서는 기관운영방향과 연계되면서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편성단계에서 기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 및 편성 예산에 대한 검토가 편성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산집행관련 업무협의회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예산 사용계획을 보다 체계화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였으며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전사 차원의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규정 마련은 없는 실정이며 '20년 진

행 중에 있다. 따라서 '19년도는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 정도가 마련된 상태이며 조속히 조직진단 결과 및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조직진단 내용을 살펴보면 타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는데 벤치마킹 대상을 농림부 산하기관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농금원의 조직 및 업무 특성이 유사한 타기관을 선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참고로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금관리유형 기관 및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음).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로 근로자 스트레스 진단·관리, 건강종합검진 업무협약(한국의료재단, 한국의학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종합검진을 활용한 직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활용실적(활용 직원 및 만족도 등) 등을 파악하여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정착이 필요하다.
- 연차 사용률은 약 80%로 높은 편이다. 다만 '18년 82.8%에서 '19년 79.5%로 3.3%p 감소하였다. 연차저축제로 인해 연차사용률이 감소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연차저축제와 별도로 연차 사용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19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1명으로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2024년까지 임금피크제 재원조달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 농림분야 공동학습그룹 운영을 통해 기관간 협업과제를 도출하고 타기관 운영사례 조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Beyond-Wall, Meet-up the 90's 등의 공감소통채널 운영 결과가 부족하다. 즉, 소통채널 운영의 목적은 소통채널을 통해 기관 내, 직원 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도출된 주요 안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통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주체(농금원, 상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1.80% 이하	1.66%	100	5.00	5.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66%로 기준치 1.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5년도 0.83%, 2016년도 2.29%, 2017년도 3.34%, 2018년도 2.55%, 2019년 1.66%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1.80% 이내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18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을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소통채널별 피드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표(노사관계)의 핵심은 안전 발굴과 안전에 대한 해결 및 피드백으로 소통채널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필요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직원 대상 교육은 1건

에 불과하다. 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외부 전문가(노무, 법무)와 상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 적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부 전문가의 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 긴급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심리 안정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노사협력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실적(전환인력의 업무수행실적을 인정받아 '19년 장관상 1명, 기관장상 1명 등 대내외 표창 수상)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노사협의회 운영 시점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 말 1회, 연간 총 4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1차 노사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기 내 진행하지 못하였다(특히 4차 노사협의회는 해를 넘겨 '20년 1월에 운영). 분기 내 운영이 어려울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해 시기 조정은 가능하나 시기를 조정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실적보고서 상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 성과(주요 안건, 해결 결과, 피드백)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소통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주체(농금원, 상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1차 실무교섭을 '19년 12월 24일 실시하여 12월 30일 체결하였는데 임금교섭 기간을 충분히 두고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노사간 비공식적 채널로 임금교섭을 상시 논의하였더라도 임금교섭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공식 채널을 통해 충분한 기간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달성한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농업정책자금 관리

(1) 정책자금 현장검사 확대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	목표부여 (편차)	13.68%	15.38	100.00	6.00	6.00

나. 평가내용

-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 확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 목표치 13.68% 대비 실적치 15.38%로 목표치 112.4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6.00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은 2015년 8.98%, 2016년 10.85%, 2017년 12.12%, 2018년 13.68%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15.38%를 달성하여 지속하여 상향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이 경영평가 편람의 요청에 맞추어 측정되었으며 적절하게 평가되었다. 기관은 검사 기관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2015년부터 매년 지표가 상승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이 2019년 15.38%를 달성하여 기준치 13.68%를 초과하였다. 제한된 예산과 인원을 바탕으로 업무효율을 강화해온 노력이 인정된다.
-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이 2018년 13.68%에서 2019년 15.38%로 상승하여, 기관이 정책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검사실적은 신규 검사인력 2명이 증원되고 소규모기관에 대한 동시검사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된다. 연간검사계획과 분기검사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있어서 검사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월별로 법정휴일 및 최소 행정업무 소요일 수 등을 제외한 검사가능일 수를 고려하였고 검사계획에 검사대상 기관수, 검사 투입인력, 소규모 기관 동시검사 일정 등을 반영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을 체계화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
-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의 역수인 검사주기를 지표로 같이 제시하는 것이 경영성과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9년 검사주기는 6.5년(=1977/304)으로 2018년 검사주기는 7.3년에 비하여 0.8년 단축되었다.
- 현장검사 실시기관 비율 또는 검사주기의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실적을 사용하는 목표부여(편차) 방식과 별도로 기관의 비전과 장기계획에 따른 전략적 목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자금 검사의 품질향상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1인당 검사일 수 비율	목표부여 (편차)	97.24%	99.34%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장검사를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검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검사원의 검사활동 확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1인당 검사일수 비율 목표치 97.24% 대비 실적치 99.34%로 목표치 102.16%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1인당 검사일 수 비율은 2015년 91.83%, 2016년 92.11%, 2017년 93.39%, 2018년 97.24%로 나타났으며, 2019년 99.34%를 달성하여 지속해서 상향 추세를 보였다.

- 1인당 검사일수 비율이 경영평가 편람의 요청에 맞추어 측정되었으며 적합하게 평가되었다. 1인당 검사일수 비율이 2019년 기준치 97.2%를 초과하여 99.34%를 달성하여서 정책자금 검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1인당 검사일수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서 검사원의 업무 피로도가 검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은 1인당 검사일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2014년부터 매년 지표가 상승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1인당 검사일수 비율이 2018년 97.24%에서 2019년 99.34%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기관이 검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성과물로 인정된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9년 80.5점으로 전년 76.4점보다 4.1점 상승하여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 현장 검사 후 교육(강평)의 경우 정책자금 관련 일반적인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검사 지적사항인 정책자금 부당대출 및 부정수급의 사전예방방법, 조치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교육내용에는 사업자의 정책자금 부정수급 사실 등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를 업무 관련자인 본점 및 지점의 대출취급자, 책임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권역별 순회교육 등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참석자 수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감독기관이 피검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 '18년부터 기재부 주관 만족도 조사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현장 검사 업무를 효율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② 농업재해보험 관리

(1) 농업재해보험의 보장수준 개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보험가입금액 X 보험별 가중치	목표부여 (편차)	203,005억	201,091억	99.06	3.50	3.43

나. 평가내용

-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의 사업실적인 보험가입금액의 측정을 통해 보장수준 개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가입금액 실적 목표치 203,005억 대비 실적치 201,091억으로 목표치 99.06%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50점 만점 중 3.4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보험가입금액 실적은 2015년 101,384억, 2016년 126,478억, 2017년 124,799억, 2018년 178,212억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는 201,091억을 달성하여 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가입금액(예산가중평균) 실적이 경영평가 편람의 요청에 맞추어 측정되었으며 적합하게 평가되었다. 보험가입금액 실적이 목표치 20조 3,005억 원에는 미달하여 지표는 만점 3.5점 중에 3.43점을 획득하여 아쉬움이 있다. 목표 미달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보험가입금액 실적이 2019년 20조 1,091억 원으로 2018년의 17조 8,212억 원에 비하여 12.8% 증가하여 기관이 보험의 가입확대에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농업인 보험은 예산의 12.6%를 사용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의 65.5%를 달성하여서 투입대비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농작물·가축·농기계 보험과 달리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금액(유족급여금)은 실제 손해가 아닌 약정된 정액으로 보상하므로 투입대비성과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2019년 가입률이 농작물재해보험은 38.9%로 가축재해보험 93.3%와 농업인안전보험 66.4%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연간 생산금액이 적거나 소농 비중이 높은 품목은 시장성이 낮아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일수록 보험의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2) 농업재해보험의 보장개선 노력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	목표부여 (편차)	33.68건	34건	100	3.50	3.50

나. 평가내용

-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건수 측정을 통해 농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보장수준 확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상품 제도개선 건수 실적 목표치 33.68건 대비 실적치 34건으로 목표치 100.9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50점 만점 중 3.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품·제도개선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21건 2017년 25건, 2018년 30건으로 나타났다으며, 2019년 34건을 달성하여 지난 4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기관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인정된다.
- 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 건수 실적이 경영평가 편람의 요청에 맞추어 측정되었으며 적합하게 평가되었다. 2019년 제도개선 실적은 34건으로 2018년의 30건에 비하여 4건 상승하여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보험상품 항목별로 투입노력(예산과 인원)에 비하여 산출성과가 얼마인지를 분석하는 도구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보험 상품 및 제도개선의 성과는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관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가축 분야의 제도개선이 11건으로 2018년 5건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과가 나온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차기 경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현재는 보험 상품 제도개선의 건수를 측정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경영성과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수치로서 제도개선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의 질적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제도개선 실적은 34건인데, 이 중에서 농작물(17건)과 가축(11건)이 82%에 달하고 농업인(4건)과 농기계(2건)는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 ÷ 기준연도 사업점검 횟수	목표부여 (편차)	1.65	1.71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보험사업자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점검 실적의 기준연도 대비 증가 수준의 측정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조사 결과 최고 목표치 대비 3.6% 초과 달성하여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보험사업점검 기관 수 증가율 조사결과 2015년도 1.00%, 2016년도 1.21%, 2017년도 1.36%, 2018년도 1.52%에서 2019년 1.71%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실적이 경영평가 편람의 요청에 맞추어 측정되었으며 적합하게 평가되었다. 2019년 72회의 사업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점검 대상과 점검 일정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업점검 횟수가 2019년 72건으로 2018년 64건에 비하여 12.5% 증가한 성과를 달성하여 기관이 사업점검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2015년 기준연도에 대비한 지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71% 향상된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기관이 정책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관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 보험사업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횟수를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업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의 개수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업점검 이후에 어떤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1)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Σ 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약정액/ Σ 모태펀드 추가조성금액	목표부여 (편차)	153.59%	145.41%	84.03	5.00	4.20

나. 평가내용

-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모태펀드 추가조성 금액 대비 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액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조사 결과 최고 목표치 153.59% 대비 실적치 145.41%로 목표치 94.47%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20 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조사결과 실적치 2013년도 101.91%, 2014년도 104.65%, 2015년도 106.77%, 2016년도 122.91%, 2017년도 131.00%, 2018년도 139.93%에서 2019년 145.41%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본 지표는 지속적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의 성과측정을 위해 펀드 추가 조성 금액 대비 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18년 94.19점을 달성하고 4.71점을 득점하였으며, 19년 84.03점을 달성하고 4.20점을 득점하였다.
- 지표 도입 초기의 경우 투자기간 종료 후 회수금의 급증이 가능하였다. 현재 모태펀드 회수 실적의 안정화 단계로 인해 도전적 목표달성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평가 초기부터 사용한 지표로, 새로운 지표 발굴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144.12	151	100.00	5.00	5.00

*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 사업설명회 지원 업체 수 + value-up 전문가 컨설팅 업체 수 + 해외 마케팅 지원 업체 수 + 국내마케팅 지원 업체 수

나. 평가내용

-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고, 기 투자가 이루어진 농식품 경영체의 가치 증진(value-up)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설명회, 컨설팅, 마케팅 등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조사결과 최고 목표치 144.12개 대비 실적치 151개로 목표치 104.77%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조사결과 2014년도 58개, 2015년도 57개, 2016년도 79개, 2017년도 98개, 2018년도 120개에서 2019년 151개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유망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고 기 투자가 이루어진 농식품경영체의 가치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18년 108.05점 달성하여 5점 득점하였으며, 19년 107.6점 달성하여 5점 득점하였다.
- 사업설명회 지원 업체 수가 74건으로 전년 63건 대비 향상되었으며, 국내마케팅 지원 업체 수가 전년 30건 대비 대폭 향상되었다. 그러나 해외 마케팅 지원 업체 수가 17건으로 전년 19건 대비 감소하였으며, 박람회 참가 직전 취소 업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수요조사 시부터 보다 많은 지원 의사가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예 : 기존 참여한 업체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분석 등)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 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 사업별 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정의되었으며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개발하였으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목표 값이 적정하게 설정되었다. 사업환경분석(SWOT)을 통하여 내부 역량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였고 실행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경영합리화에 노력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SWOT 분석과 실행계획과의 연계성이 불분명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환류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 부서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투명한 절차로 진행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과지표와 기관의 전략목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다 긴밀하게 제시하면 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SWOT 분석을 하는 회의로 농금원 비전 워크숍이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1차는 1월 10일이고 2차는 1월 25일이다.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일반적인 일정에 따르면 SWOT 분석은 전년도 말에 실시하는 것이 목표설정과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

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3가지 실행과제별로 추진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고 일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 이외에 형사고발까지 진행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점검을 통하여 운영비 초과집행액 8억 원을 정산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예산을 절감한 성과가 인정된다.
- 정책자금 검사·관리 기반 강화 과제에서 현장 검사를 확대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여 부당대출을 제재한 성과가 인정된다.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관리역량 강화 과제에서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한 노력이 인정된다. 검사원 전문역량 제고 및 청렴·윤리의식 고취 과제에서 지적사례를 도출하고 공유한 노력이 인정된다. 농업재해보험 상품과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농업정책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는 계획부터 실행과 사후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사업비가 효과적으로 집행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 농업정책보험의 세부사업별로 예산과 인력 투입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있어서 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사업의 긍정적 성과만 나열하기보다는 개선할 문제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사업에 있어서 계획-집행-통제 단계가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감기관과 유관기관에 지적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www.apfs.kr)를 통해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검사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며, 검사사례집은 검사사례가 축적 되면 2~3년마다 발간·배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검사사례집을 매년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의 실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검사 주기 단축 목표 달성율,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 자펀드 민간 출자 비율 등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성과 목표 달성도는 양호해 보인다. 대출 기관 귀책 사유 지적 금액 비율 목표치 대비 실적 달성도가 양호하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률이 목표치 대비 양호한 실적 달성도를 보인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의 규모 증가 노력이 우수하다.
- 타 성과지표와 비교하여 여성에 대한 보험료 지원 차이로 인해 여성의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목표 설정은 의미가 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대변/비대면 접촉을 통한 홍보 강화로 해당 실적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 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대내적으로 주간 업무보고, 월간 업무보고, 부서장 회의, 분기 실적 보고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자금, 재해보험 가입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전년도 성과분석을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으로 환류 노력을 한 점이 우수하다. 농업정책보험 사업관리를 통한 노력으로 테마별 집중점검을 통한 사업점검으로 운영비를 절감한 점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민간 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참여 확대’와 ‘농식품 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투자 활성화 노력’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의 환류 노력이 우수하다.

- 전년도 성과분석,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 문제점의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본부별로 전년도 성과분석 및 문제점 영향요인 분석 여부가 여전히 편차가 있다. 본부별 자체평가의 분석 환류 노력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전사적인 노력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추진 요구하는 사업환경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기술하였다. 농가 현실을 반영한 보험 상품 도입 및 개선으로 공공성 강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기술하였다.
- ‘농식품 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투자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농식품 펀드 투자 기회 확대 및 클라우드 펀딩 투자 금액 증가에 따라 피 투자 경영체의 고용인원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 실적 보고서 상에 기술된 사회적 가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선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 사업이 기관 본연의 기존 업무와 밀접히 연관되는 성격이다. 사회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Best Practice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은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 등이며, 각 사업별로 범위를 지정한 후 성과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표의 적합성은 SMART 분석, 전략연계성, 사회적가치 등을 판단지표로 구성해 종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를 대표성과지표로 활용해 프로세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선정된 대표지표의 구성으로 볼 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바람직한 성과지표는(신생기관이 아닐 시) 결과단계에서 구성되어야 하나 금융원에서 제시한 지표가 결과단계의 지표인지는 의문점이 든다.
- 예를 들어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정책자금검사의 품질향상 노력지표의 경우 결과단계가 아닌 산출단계로 볼 수 있으며,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경우 정책보험 보장수준 개선과 보장개선 노력지표의 중복성 존재, 보장개선의 경우 결과단계 지표가 맞는지의 의문, 투자지원사업 확대지표의 경우 결과단계가 아닌 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보조지표로 볼 수 있다.
- 문제제기를 한 해당지표의 경우 사업목적과 연계되는 지표이므로 성과지표로 활용해도 무방하나, 바람직한(결과단계의) 대표성과지표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 차원에서 고민해 볼 문제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정책자금 현장검사 확대, 정책자금 검사의 품질향상노력,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농업정책보험 보장수준 개선, 보장개선 노력,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의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지표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 제시한 방식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다만,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의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지표의 경우, 평가산식이 사업설명회 지원업체수 +Value-up 전문가 컨설팅업체수 + 해외마케팅 지원 업체수 +국내마케팅 지원 업체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산식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19년을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 지원업체수는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산식에 활용된 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해 목표달성도가 100%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지표를 나타내는 주요 핵심성과가 산식에서 활용된 4개의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향후 기관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3	B+	2.40	3	3.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3	2.93
	(3) 안전 및 환경	2	B+	1.60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3	3.00
	(5) 윤리경영	3	0	0.00		
	2.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A+ /A0	2.50		
	(2) 국민평가(89점)				4	3.56
	(3) 경영정보 공시(별점 16점)				2	1.33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3.73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B+	3.20		
(2) 충인건비 관리				5.00	5.00	
(3) 노사관계	3	A0	2.70			
경영관리 합계(36.55)		20	-	14	25	22.55
주요 사업	1. 선박 아시아메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8	17.93
	(2) 안전사고 예방률				2	1.94
	2. AGM 예찰 방제					
	(1) AGM 예찰활동률				5	5.00
	3.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5	4.53
	3. 주요사업 성과 관리의 적정성	18		14.00		
	4.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7		7.00		
	주요사업 합계(50.4)		25	-	21	30
총계		86.95				

1 경영관리

①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9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8년도 추가된 신규 평가지표로,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 2019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없어 전환 인원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누적으로 평점을 부여하였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인력수요 분석을 통한 신규 일자리 운영계획 수립 등 업무수행체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계절적 업무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성과는 바람직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진전략체계의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며,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이외에 다양한 근로형태별 일자리 창출 기여수준 측면에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관의 혁신적 노력은 기관의 중기 혁신전략체계와 연계한 성과제시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 혁신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수립 노력, 정현원차 관리,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계절적 업무특성을 고려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무량 및 인력수요 분석에 따른 신규 일자리 운영계획 수립 노력과 사회적제품 구입확대를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 노력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력의 구체적 판단 노력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사업무 장기 담당 시 장단점 분석 및 단점 요인의 해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97.67	97.67	3.00	2.93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조사 결과 법정 의무 고용률 대비 95.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0점 만점에 1.43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1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0점 만점에 1.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1.5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1.5점,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0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도 추가된 지표로, 2018년도 3.00점, 2019년도 2.68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95.0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100%,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은 용역 대상자가 없어 세부 지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세부 노력 및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노력은 합리적 접근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채용절차의 투명성, 청년의무고용비율(적극성 측면)). 또한, 평가편람의 세부평가내용에 적합한 성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표적합성 제고가 요구된다.
-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추진체계 수립하였고, 블라인드 채용, 채용규칙 신설 등 채용비리 근절 및 공정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퇴직자 및 육아휴직자를 고려한 청년 채용 노력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측면에서의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단계적 발전개념을 수립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업무특성을 고려한 채용의 타당성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고졸자 채용 노력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령자 일자리 창출 성과 등 제시성과의 지표적합성이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채용의 결과만 제시되어 있어, 기관의 업무특성이 반영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 특성 고려 중장기 차원의 여성관리자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 계획 등에 대한 성과 제시 노력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분야별 세부추진사항 측면에서 적절한 안전 및 환경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분야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기관의 업무특성 및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측면에서 수행가능한 역할 발굴 등 적극성 제고가 요구된다.
- 기관의 혁신전략과 연계한 안전관리/정보보안 추진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한 점, 분야별 추진전략을 고려한 시행과제 구체화 및 실행과제별 세부사항을 정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안전관리요소의 분류체계 및 활동관리의 체계화 노력, 사무소별 해상 안전사고 모의훈련 실시 노력, 검사안전수칙에 따른 유형별 분석 및 대응활동의 구체화 노력, 분야별 정보보안 유형 및 잠재적 위협 식별/대응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승하선 관련 부상사고 발생 등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 원인분석 결과와 보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관의 업무 특성 및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분야 발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체적인 성과지표를 고려한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정립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 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세부 내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비율, %)	가중치
필수 선택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3~0.6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3~0.6
기관 자율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구매실적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3~0.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비 100%	집행실적	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4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결과를 준용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실적, 온누리상품권 구매 실적은 구매 목표를 100%로 달성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81.40%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10.48% 달성, 여성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13.60%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2.68% 달성, 기술개발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중소기업 물품 총 구매액의 20.88% 달성,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경상경비의 1.53%를 달성하였다.
- 전체 항목 중 미준수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시되는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중점을 두는 사항을 자체 판단한 결과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총 구매액 대비 구성비율, 관련 지침 등 평가 핵심사항의 보고서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

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윤리경영 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윤리경영 대상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체계 발전이 요구된다.
- 중장기 윤리경영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윤리경영체계 정립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한 점, 직원참여를 통한 부패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청렴 주의보 발령 등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자체 감찰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지표적합성 검토 등 평가편람의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한 성과제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윤리현장 제정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판단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윤리경영 대상 범위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기관차원의 경고로 인하여 “0” 으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18년 지적사항이었던 체계적인 혁신계획 수립을 위해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추진 전략 및 과제, 과제별 성과지표 등을 수립해 단계별로 수행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사무소 현장 방문을 확대(9회→21회)해 직원들의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하려고 하는 등 혁신과제를 통해 의도했던 목적들을 달성하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지침 제정 및 구성을 통한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는데, 제시한 내용은 적극행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적극행정은 규정마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적극행정 면책사유가 제시되었는지, 소극행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예방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참고해 기관의 적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규정 등을 수립하고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 체계적인 혁신계획 수립을 직원 내부의 회의, 아이디어 등을 통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되나 PDCA관점이 부족하며, 외부의 눈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부재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내부의 의견(아이디어)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만 설계될 수 있으며, 계획을 세운 후 실천-확인-문제점 확인-조치 등의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18년에 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외부의 관점과 체계적 계획이 적절히 혼합된다면 좋을 듯 하다.
- 특히 전략에는 국민참여 확대, 지역사회 공헌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국민참여는 계획만 수립되었으며, 실제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사회 공헌 또한 미비한 내용이며, 다양한 고객니즈파악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전략이 기관규모에 비해 너무 방대하게 잡혀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실제 이를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기를 권장한다. 또한, 실제 실행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시에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기를 권고한다.
- 중장기계획, 혁신방안 등을 직원의 아이디어로 구성해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작년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또한, 자체 혁신지수를 만들어 혁신역량 강화 등 노력을 실시했으며, '19년부터 내외부고객만족도를 실시해 니즈파악을 하려고 한다.

- 생산고객, 전달고객, 소비고객, 영향고객별 이해관계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소통 수집 채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개선방안 및 환류시스템을 제시하고 피드백하려고 하는 부분이 긍정적이다. 또한, 고객과 대내외 소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기관운영에 활용하려 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용체계 구축이 체계적이며, 이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민편의 증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 있다.
- 기관사업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기관홍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구매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의 여유가 된다면 지역사회 기여가 가능한 농산물구매, 지역소외계층 지원(사회복지시설 및 지역혁신 네트워크) 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하다. 현재 제시한 지역사회 공헌도 충분해 보이나 더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C”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A+”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A0” 로 평가한다.

(2) 국민평가(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9.00	89.00	4.00	3.56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9.00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5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9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89.00점으로 만족도 점수가 '15년 91.40점, '16년 90.50점, '17년 89.90점, '18년 87.20점으로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었으나 2019년도 다시 상승하여, 2018년도까지의 만족도 하락 요인과 2019년도 만족도 상승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현장평가 진행 이후 공고되어, 피평가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불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16	66.50	2.00	1.33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9년도 경영정보 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9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16점으로 평점 66.50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3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 종합 별점은 2018년도 30점에서 2019년도 16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74.50%	74.50	5.00	3.73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74.5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3.7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2015년도 66.60%, 2016년도 72.30%, 2017년도 60.00%, 2018년도 78.50%에서 2019년도 74.50%로 전년 대비 낮아진 성과를 보였다.
- 예산 집행률은 74.5%로 전년 대비 4%p 감소하였다. 특히 4년 연속 80% 미만의 예산 집행률을 보여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관 예산 운영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참작된다.
-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존 예산집행 사항들을 분석하여 과다·과소 편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편성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관장 주관으로 예산편성위원회 등을 운영하기를 권고하며, 이를 통해 기관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년도 권고사항과 같이 지금의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해 나갈 것인지 선제적 고민 및 대처가 요구된다.
- 예산집행 지침 및 일반기업회계 기준 교육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 항목별 집행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 지속성 확보를 위한 시나리오(지출절감에 따른 기관운영), 경영평가지표 관리전략 등을 세워 기관의 예산을 관리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예산집행률이 과거 대비 하향되었고, 집행률 또한 매년 70%로 나타나 예산운영의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산운영방식이 변경된다면 편성 및 집행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과거 실적행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시간 예산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수지를 분석한다고 제시하였는데,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유·전파하여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 관련 직원 의견수렴 진행하였으며 총 13개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수용, 보완수용, 미수용 등 구분하여 직원에게 피드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의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 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복리후생제도의 자녀 학비 지원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연령대가 낮아 해당 직원이 없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조직 인력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리후생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19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없으며 '25년 최초로 1명이 발생 된다. 정부 권고안에 따라 신규채용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 향후 임피제 대상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임금피크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평가체계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수용, 보완수용, 미수용 등 구분하여 직원에게 피드백을 실시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18년 시범운영을 통해 노사협의회 및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19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연봉제의 경우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어 기재부에서 권장하는 5단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2.60% 이하	0.94%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9%로 기준치 2.80%(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2.8%)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5년도 4.59%, 2016년도 2.71%, 2017년도 4.39%, 2018년도 0.94%에서 2019년도 2.79%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80%(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2.80%)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2.79%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2.80%(1인당 평균 임금이 해당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며, 공공기관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2.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및 2018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기 노사협의회를 4차례, 임시노사협의회 2차례 운영하고 있다.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영진과 노측, 경영진과 직원, 직원과 직원의 다각적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본 지표(노사관계)의 핵심은 안전 발굴과 안전에 대한 해결 및 피드백으로 소통채널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소통 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주체(인증원, 상 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정기 노사협의회 외에 급한 안전에 대해 임시 노사협의회(1월, 8월 2회 운영)를 운영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14년부터 내부고객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내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19년 처음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최근 1년간 성희롱 경험자 없으며 신규직원 대상 교육 확대, 지속적 제도 홍보의 필요성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계획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사무소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원인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 원인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1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국내 AGM 검출실적 - 상대국 AGM 검출실적) / 국내 AGM 검출실적 X100	목표 대비 실적	100	99.53	99.63	18	17.93

나. 평가내용

-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 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상대국에서 신속 통관을 위하여 상대국 AGM 검출 예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조사 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99.5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8점 만점 중 17.9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조사결과 2015년도 96.15%, 2016년도 100.00%, 2017년도 98.15%, 2018년도 98.49%에서 2019년도 99.53%로 전년 대비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국가적으로 수출입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 선박검사 수수료가 기관의 주요수입원으로 되어 있어 부담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검사시기가 연중 집중되어 있는 업무의 성격 상 재원 마련을 위한 무리한 검사건수 책정 및 계약직 인력투입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정부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경상운영비에 대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상황별로 선박 위험정도를 차등화하여 조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1년도이후 선박검사 수수료 원가 할인율의 적정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사전대비하고 있다.

- 선박이력관리 추가자료 요청 시 확인한 사항 : 홈페이지에서 검사대상 선박에 대한 기본정보만 볼 수 있으므로 보다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선박 AGM 검사 이력관리에 대한 현황자료 확인 : 분기별, 연 단위로 정리하여 2012년 이후 이력관리 현황을 누적하여 관리할 필요 있으며 각 선박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이력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선박의 위험정도 차등화 기준 및 조치 : 차등화 기준에 따라 안전~위험선박의 검사시간 및 투입인원의 차이가 근소하므로 주의, 위험, 심각수준의 선박은 검사시간 연장 및 투입인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R&D 담당을 지정하여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기획 및 연구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 또는 양성하여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안전사고 예방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안전사고 발생 건수 / 선박 검사 건수	목표 대비 실적	100%	96.75%	96.75	2.00	1.94

나. 평가내용

-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안전사고 예방률 조사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96.7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9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안전사고 예방률 조사결과 2015년도 100%, 2016년도 100%, 2017년도 100%, 2018년도 100%로 매년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도 1건의 경상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 선박검사의 건수의 증감이 월별로 상이하여 집중되는 월이 있으나 검사자체의 진행은 연중진행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훈련을 연 1회(5월) 실시하던 것을 증가하고 안전사고 0건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019년도 AGM 3077건의 검사 수행 중 1건의 경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 따라 검사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 안전예방 훈련 강화가 필요하며 검사원의 연령, 경험, 검사 당일의 건강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AGM 예찰 방제

(1) AGM 예찰 활동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AGM 예찰 활동률*	목표 대비 실적	513	550	100	2.50	5.00
		6,152	8,250	100	2.50	

* (평가연도 AGM 트랩설치 수/목표 트랩설치 수X0.5)+(평가연도 AGM 트랩조사 수/목표 트랩조사 수X0.5)

나. 평가내용

- AGM 고위험기간 중 항만 및 항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트랩설치 조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목표대비 AGM 트랩 설치 수 조사 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7.21%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50점 만점 중 2.50점을 획득하였다. 목표대비 AGM 트랩 조사 수 조사 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34.1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2.50점 만점 중 2.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AGM 트랩설치 실적은 2015년 100.05%, 2016년 103.88%, 2017년 100.40%, 2018년 101.48%로 나타났으며, 2019년 107.21%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상향하였다. AGM 트랩 조사 실적은 2015년 100.05%, 2016년 104.60%, 2017년 100.40%, 2018년 101.48%로 나타났으며, 2019년 134.10%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크게 상향하였다.

- 경유 선박들의 잠재 오염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AGM 예찰 활동률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에는 모든 트랩을 페로몬으로 이용하고 있고 매년 꾸준한 설치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다. 살충제 살포, 난괴 제거 등 항구 주변 AGM 빈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포획 수가 2018년 대비 3배 증가하였고 선박검출도 또한 3배 증가한 부분은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것 같고 AGM 포획 수가 갑자기 3배 증가한 이유 확인과 이를 줄이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8년에 이미 설치된 페로몬 트랩 수가 목표치를 상회하였고 2019년에도 추가 설치하여 항구 주변 AGM의 활동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한된 인력으로 매년 늘어나는 트랩에서 AGM의 검출을 확인, 비교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활동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국제적 경쟁력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8년 평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AGM의 경우, 특히 성충인 경우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으므로 항구 주변 AGM 예찰 활동률이나 항만 주변 2~3 km 내에서 진행되는 난괴 제거 작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으므로 추후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2019년 난괴 제거 작업 및 살충제 살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했음에도 AGM 검출 빈도수가 3배 증가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항구 주변 외 지역에서의 활동률이나 난괴 제거 작업이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면 공동연구 수행 등 R&D 과제 발굴에 의한 진행이 되면 그 효과가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③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1) 수입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목표부여 (일반)	1,962	2,046	30.00	1.50	4.53
		67	71	66.06	3.50	

나. 평가내용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실적과 병·해충·금지품 발견을 통해 검역장소 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수입재식용 검역 장소 관리실적 조사 결과 목표치 110% 대비 실적치 114.70%를 달성하였고,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 건수 조사 결과 목표치 110% 대비 실적치 103.8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4.5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수입재식용 검역 장소 관리업무 실적은 2015년 99.01%, 2016년 97.70%, 2017년 95.85%, 2018년 111.32%로 나타났으며, 2019년 114.70%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였다.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 건수는 2015년 129.27%, 2016년 124.53%, 2017년 106.06%, 2018년 111.43%로 나타났으며, 2019년 103.80%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관리업무는 외래 병해충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업무이다. 수입 재식용 식물에서 병해충 검출 시 신속한 방제조치를 취하여 외래 유입 병해충의 국내 정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된다. 검출비율의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관리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모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않은 제한적인 인력 Pool의 활용 현실에도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에서 외래 병해충 발견빈도가 증가하고 병해충들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한 방제조치들을 취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은 우수하다.
- 업무 수요에 따라 기간제로 전문가를 활용한 부분은 인건비 절약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나 업무연계성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향후 기간제 인력 활용이 아닌 전문인력 고용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업무가 재식용 식물이 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외래병해충들의 감염 또는 오염을 검사하는 것인데 현재는 주로 갑각류해충과 기타 해충 및 개미 등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준이다(전년도에도 동일한 의견 제시하였음). 만족

도 관련 고객의견 회수율 제고가 필요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이나 반영된 조치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 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2019년도 안전사고 1건이 발생됨에 따라 선박검사 시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 건수가 3,000건이상 되는 상황에서 지난 여러해 안전사고 0건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과 가상모의 훈련의 내용이 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각 사무소별 특징적인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검사원의 연령,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검사당일 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이후 조치에 대한 세밀한 행동요령 및 보고체계를 확고히 수립하여 인명사고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검사 할인을 상향조정 시 국내 선박에 대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선박과 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하더라도 차별화된 보

완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비계량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체계적 선박 관리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이력관리제를 실시하고자 한 점과 수수료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선제적 재원 마련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 점에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선박검사 수수료 할인을 책정을 위한 사전 조사(해외 수수료 정보, 기관의 인건비 책정수준 등)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관의 경상 운영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안전교육 참여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제시한 목표치들을 대비하여 거의 모든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AGM 선박검사 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간제/기간제 직원들의 활용 및 사무소 간 효율적인 지원체계 유지로 검사 시간 지체 없이 요구되는 검사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업무량이 특정 기간에 몰리는 특성상 사고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방교육과 모의훈련 등을 진행한 것은 긍정적이다. 위의 노력에도 2019년 사고가 1건 발생하였다. 향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과정 프로토콜이 필요하며 시간제/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고 시에도 동일한 프로토콜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 최근 발생률에 기반한 AGM 페로몬트랩의 설치 및 운영한 것은 AGM 예찰과 방제 비용 절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 안전사고(1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해양안전교육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한 직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직원이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AGM의 가능한 이동거리를 감안해 각 항만 소재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PLS 전면 시행에 따라 등록 권장된 전용 약제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 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제한된 예산과 인원으로 늘어나는 검사 선박 수와 재식용 수입식물들의 검사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진다. 자체평가 및 외부 지적 사항들에 모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료 인상이나 정부 재원 확보 등에 의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요구되는 사업 및 환류 활동들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전문가를 고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선박 AGM 검사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식물검역 관계관들과의 정례회의 및 운영관련 자문과 점검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발전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식용식물 대상 병해충 검사 중 검역관련 병해충 발견 시 즉시 검역 처분 조치하여 병해충들의 외래유입을 차단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한 점은 긍정적이다.
- 고객의견 회수율 증가 방안 및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0”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원활한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안전한 검사환경 조성, 예찰방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규칙한 검사 요구량에 현재까지는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인력과 재원에 의해 신속한 검사 등 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AGM 밀도감축을 위해 동계기간 난괴제거, 페로몬트랩을 활용한 AGM 밀도검사 및 항만소재 유관기관들과의 방제 활동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계기간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주중 주간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주말에도 적시적기 선박검사를 수행하여 상대국에 신속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 항만 주변 AGM 포획 수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관련 연관 지자체와의 체계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검사 수수료의 인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은 미국·캐나다·칠레 및 뉴질랜드로 출항하는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하여 AGM을 검사하고 무감염을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이다. 역할은 원활한 수출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 기반 자연환경 보호와 철저한 검역 장소 관리에 의한 공공성 강화에 있다. 상기 내용검토 결과, 지표구성을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과 시사점,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기관설립목적과 연계되는 계량지표의 구성이 적절하며, 대표지표의 연계성 또한 잘 구성되어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A+”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목표 수준의 도전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항만 내 AGM 발생 모니터링 회수를 줄이고 모니터링 사업을 종료하는 등 발생 건수가 없다고 하여도 모니터링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선박검사를 통한 AGM 검출 예방률, 안전사고 예방률, AGM 예찰 방제 등의 지표산식과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한 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 산식 및 목표달성도도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선박 AGM 검사지표의 경우 기관설립, 목적과 연계된 지표이나 총 30점 만점 중 67%에 달하는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점 구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AGM 검출의 경우 '18년 실적대비 '19년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인증원 내에서 향후 계획을 적절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A+” 로 평가한다.

4. 한식진흥원

❖ 한식진흥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1.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3	B0	2.10	3	3.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3	2.74
	(3) 안전 및 환경	2	B0	1.4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2.81
	(5) 윤리경영	3	B0	2.10		
	2.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	3	B+/A +/A0	2.70		
	(2) 국민평가(81.16점)				4	3.25
	(3) 경영정보 공시(별점 7점)				2	1.67
	3.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 운영·성과				5	4.86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	2.00		
(2) 총인건비 관리				5	5.00	
(3) 노사관계	3	C	1.80			
경영관리 합계(37.03)	20	-	13.7	25	23.33	
주요 사업	1.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10	10.00
	2. 한식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실적					
	(1) 한식 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				10	10.00
	3.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1) 홍보 효과도(국내외 홍보 효과)				5	5.00
	4. 한식문화관 운영성과					
	(1)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5	4.98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8		11.20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7		2.80			
주요사업 합계(43.98)	25	-	14	30	29.98	
총계			81.01			

1 경영관리

①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 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상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에 따라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019년도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조사결과 평점 100점으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8년도 추가된 신규 평가지표로, 2018년 5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은 2017년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목표를 누적 달성하였다. 전환심의위원회, 전환협의체를 통한 전환절차의 투명성,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노력한 결과가 인정된다.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

의 수립, 이의 지속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혁신적 노력, 협력과 공유를 위한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법 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조직발전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개편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중장기 로드맵 등 일자리 창출 계획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성과의 제시에 있어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리체계의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년도 평가 권고사항의 환류는 조직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류 체계의 제시 및 환류를 위한 분석적 접근 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한식정책개선추진단의 업무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구현 전반에 걸친 종합발전계획의 구체화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식정책개선 추진단을 통한 업무발전을 위한 노력과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재정립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업무영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노력의 지속가능성,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현원차 관리 95% 이상 유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적합성 제고를 통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성과제시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관련 체계, 제도 등 기존 관련사항 제시 능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대비 혁신적 노력 항목 및 실적 변화사항 제시 노력이 강화(법 제정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의 혁신적 노력 및 성과제시 체계 발전)되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1.50	1.5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6 ~ 1.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6 ~ 1.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0.6 ~ 1.0), 총합계 3점).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1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50점 만점에 1.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관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는 없으며,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적용 대상도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에 가중치 1.5점을 배당하고, 잔여점수 1.5점은 사회적 가치구현 범주의 총점 19점에서 제외하여 총점 17.5점으로 산출한 후 19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비적용 항목에 대한 자체 적용 기준). 장애인 채용에 대한 노력과 법정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2018년도 추가된 지표로, 2018년도 3.00점 만점에 2.25점(75.00%), 2019년도 1.50점 만점에 1.50점(100.00%)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지침 위배사항이 없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고용인원 대비 235%,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실적은 용역 대상자가 없어 지침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 및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공정 채용을 위한 규정, 제도 등의 보완 및 채용 프로세스 발전이 비교적 합리적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졸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이는 기관의 업무 특성 및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계획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 필요사항의 가시화가 요구된다.
- 공정 채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제도, 절차 보완 노력과 청년 창업인 육성 발굴을 위한 컨설팅 확대 노력, 여성 관리자 확대 및 여성 예비관리자 육성 노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청년, 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 관련 내부 역량에 대한 강·약점(장단점) 분석이 필요하며, 고졸 채용 확대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취업정보채널 이외에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홍보 등 노력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 업무 특성과 연계된 양성평등개념 기반 아래 여성관리자 확대개념 및 수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업무 특성이 연계된 분야별 경력단절 여성 활용성을 판단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차별적 요소 식별 등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산업재해 안전관리,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 등 근로자와 국민

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본원과 한식문화관의 업무 및 협조체계 구체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물적, 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자와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유형 및 요소 관리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 보안관리 분야도 업무 분야별 및 관리책임 부서/인력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체적 제시가 필요하며 내부 직원의 안전관리 요소 식별 및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해외 안전관리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수집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 데이터 생명주기 단계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본원과 한식진흥원의 구체적 업무분장 내용 및 협조 관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인적, 물적, 제도적 측면에서 근로자와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유형 및 요소 관리 체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직원 안전관리 유형의 식별 및 관리체계 강화되어야 하며, 피해복구지원의 지표 적합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교육 분야별 소요 판단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 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100.00	93.67	93.67	3.00	2.81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세부 내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비율, %)	가중치
필수 선택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구매실적	0.3~0.6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4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4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3~0.6
기관 자율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구매실적	0.2~0.4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3~0.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4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집행비 100%	집행실적	0.3~0.5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2점 만점에 0.2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 결과, 기준치 물품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4점 만점에 0.4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중 0.6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6점 만점에 0.6점을 획득하였다. 재정조기집행비 조사 결과, 기준치 상반기 집행계획대비 집행비 100% 중 77.5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23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4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총 7개의 세부지표 중 5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였고, 중소기업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상품, 온누리상품권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다. 관련 법령 또는 권장사항의 명확한 제시 및 실적자료 제시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73.94% 달성,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경상경비 총액의 1.22% 달성, 여성 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물품 구매총액의 6.76% 달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총 구매금액의 1.075% 달성, 기술개발생산품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90% 달성,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경상경비의 1.64%, 재정 조기 집행실적은 상반기 집행계획대비 77.50%를 달성하였다.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운영성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위상 변화(법적 근거 마련)를 고려한 공직복무 관리계획 수립 등 윤리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 대상 범위 및 책임관리부서의 충분성 등 윤리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관의 여건상 전담 부서/인력의 편성이 어려울 경우, 외부인력을 활용한 위원회, 직원으로 구성되는 T/F 등 다양한 형태의 관리 및 견제 조직의 운영 타당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타 기관의 징계/경고 사례를 고려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대상 범위 및 핵심관리요소의 식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한 점, 자체 점검결과를 반영한 윤리규범 정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직복무 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 고충처리상담 담당자 지정 등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타 기관 징계/경고 사례를 고려한 윤리경영 범위 재설정 및 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한 윤리경영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및 윤리경영체계 발전을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추진,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요소의 식별 및 유형 분류, 유형별 관리체계 정립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 운영 조직의 적절성 및 적절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경영공시 별점 7점에 대한 구체적 원인 및 개선방안이 원인분석 및 대책의 타당성과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윤리현장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내부건제시스템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관리 개념이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0”로 평가한다.

② 국민소통 및 혁신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2019년 신규 추가된 평가지표로,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전년도 혁신위원회 운영 이후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인해 경영체계를 재수립하였으며, 미래비전 확립 및 신사업발굴을 위해 추진전략(한식진흥기반강화, 음식관광활성화, 전문인력양성, 한식교류 및 수출촉진 등)을 세워 노력 중이다. 하위법령 초안 마련, 사업개편, 조직제도개편, 기능개선의 성과목표를 세운 후 운영하고 있다. PDCA를 통해 기관활동을 제시하였으며, 18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 '20년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성과목표(하위법령 초안 마련, 사업개편, 조직제도개편, 기능개편), PDCA관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구성원 공유, 점진 프로세스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식진흥법 제정 이후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제시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한식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치도 정립될 것이다. 각 분과별 구성원의 혁신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업이 잘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과별 추진현황과 일정공유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쉬운 점은 보고서상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연계성과 성과 확인이 어려운 내용이 있었으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적극행정 내용도 미흡하다. 특히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부재로 인해 맞지 않는 성과를 내세웠으며, 소극행정이나 적극행정 면책 사유 등에 대한 행안부 권고사항의 내용이 없었다.
- 적극행정은 규정 마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적극행정 면책 사유가 제시되었는지, 소극행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예방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참고해 기관의 적극행정 사례,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규정 등을 수립하고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소통강화를 위한 온라인 채널(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활성화되어 있어 홍보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필요로 하는 니즈 파악이 수월하다. 특히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댓글 확인이 가능해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또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창출 주체, 생산 주체, 연관 주체, 소비 주체 등으로 구분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식진흥원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이용할 시 화면배치가 불편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레시피자료 오타 등 소비자 지적사항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환류해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를 한식진흥법 제정에 따른 성과목표(하위법령 마련 등), 실행과제별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년의 경우 실행과제별 내외부 의견수렴, 자문회의, 공청회, 아이디어 회의 등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에 time-lag가 있는 상태이다. 추진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과제별 체계적인 계획과 더불어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모니터링 점검, 환류 체계가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시한 내용으로는 '20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상황변화에 맞는 정책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A+” ③ 중점추진과제의 성과를 “A0”로 평가한다.

(2) 국민평가(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1.16	81.25	4.00	3.25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만족도 지수는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나 주무 부처 주관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100점 만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1.16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3.2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15년도 89.20점, 2016년도 81.00점, 2017년도 83.30점, 2018년 84.10점에서 2019년도 81.16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현장평가 진행 이후 공고되어, 피평가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불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벌점 0	벌점 7	83.50	2.00	1.67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19년도 경영정보 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가중치 1.0 기준 배점 X2). 2019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7점으로 평점 83.50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1.67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진흥원 2019년 통합공시 점검결과의 별점은 총 7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공시와 관련해 '15년 38점, '16년 22점, '17년 11점, '18년 11점의 별점을 받았으며, 2019년은 별점 7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 예산관리 및 성과(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97.20	97.20	5.00	4.86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7.2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4.8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2015년도 64.466%, 2016년도 92.506%, 2017년도 95.488%, 2018년도 91.457%에서 2019년 97.20%로 과거 대비 상향되었다.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이 없는지 살펴본 결과, 12월의 예산집행률이 30.5%, 4/4분기 집행률이 50.23%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것이 확인되었다.

- 예산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비교적 연간 계획에 맞춰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 집행률 실적은 우수하나 계약 잔금 등이 12월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비 편성 및 집행 여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마련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직무수당을 폐지하고 직무가치를 반영한 직무급제를 도입하였다. 성과평가체계를 기존 1~5급 동일기준 평가에서 직급단위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기존 업적평가 + 역량평가에 새롭게 다면평가를 도입하여 부서장 대상 부서원들의 상향평가 및 개인 동료평가를 도입하였으며 동료평가 관대화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가 역량평가결과와 동료평가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타 기관과 동일하게 시차출퇴근제, 출산휴가 확대 등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을 준수하는 정도고 진흥원 자체적 개선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임피제 대상자의 전문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신규직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중장기 채용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직원과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무엇이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 소통결과에 대해 해결 가능 시기(즉시, 단기, 중기, 장기, 불가능)와 해결주체(진흥원, 상위기관인 농림부 등)를 구분하여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금피크제 중장기 신규채용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 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평가연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1.80% 이하	1.638%	100	5.00	5.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19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1.638%로 기준치 1.80%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점 만점 중 5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15년도 4.61%, 2016년도 2.927%, 2017년도 2.746%, 2018년도 2.387%, 2019년도 1.638%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15년 4.80%, '16년 3.00%, '17년 3.50%, '18년 2.60%, '19년 1.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1.64%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1.8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5점 만점에 5점을 획득하였다. '17년, '18년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소통채널에 비해 도출된 안전과 해결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노사협의회는 진흥원의 주요 안전을 해결하는 창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직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외에 다른 창구를 활용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탕비실 환경개선, 임신, 출산 선물 등).
-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근로자위원이 대표로 내부 부서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내부 부서평가지표를 확인한 결과 기관평가지표와 연계하다 보니 적절하지 못한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예로 홍보사업팀 지표가 페이지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식진흥원의 사업 성과를 위한 지표 적절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직원의 직무별 필요 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노사협의회 운영 시점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 말 1회, 연간 총 4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4차 노사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기 내 진행하지 못하였다. 분기 내 운영이 어려울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해 시기 조정은 가능하나 시기를 조정할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표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본 지표의 내용이 아니지만, 내부 부서 평가 시 기관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진흥원 성과지표 개선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① 한식 콘텐츠 활용 실적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제공 건수	목표부여 (일반)	3,968,377	4,012,938	100.00	10.00	10.00

나. 평가내용

- 진흥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제공된 증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 콘텐츠 활용도 목표치 3,968,377건 대비 실적치 4,012,938건으로 목표치 101.12%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0점 만점 중 10.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아카이브 사이트 페이지뷰, 협조시스템을 통한 방문자 페이지뷰, 민원접수를 통해 제공된 합산된 콘텐츠 수는 2017년 2,490,742건에서, 2018년 3,306,981건, 2019년 4,012,938건으로 2018년까지 30% 이상의 성과 향상을 보이다가 2019년도는 21% 수준으로 향상 수준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콘텐츠의 재분류 및 수요자 맞춤 가공 등을 통해 콘텐츠의 관리와 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식아카이브 사이트 페이지뷰수가 전년 대비 37.50%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
- 대형포털 네이버의 지식백과 플랫폼 등 협조시스템을 통한 방문자 페이지뷰도 계속 증가하는 실적을 보였으며, 전년도와 유사하게 본 지표의 가장 많은 비중(86.08%)을 차지하고 있다.
- 한식아카이브 콘텐츠 검색을 위한 접근성 개선, SNS 채널 활성화 및 대응 시간 단축 등으로 한식아카이브 사이트 페이지뷰 및 민원접수를 통해 제공된 콘텐츠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거나 협조시스템을 통한 방문자 페이지뷰의 비중이 여전히 86%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바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한식 전문인력양성 지원사업 실적

(1) 한식 교육 공급 인프라 증가 실적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교·강사 교육 인원 X 교육지역/예산액) X100	목표부여 (일반)	316.158	370.509	100.00	10.00	10.00

나. 평가내용

- 본 지표는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를 목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전년도와는 달리 한식 교·강사 교육인원과 해외 파견 교육지역을 곱하여 사업예산(한식 교·강사 교육, 한식전문강사 해외교육기관 파견지원, 해외호텔연계 한식인력 해외진출지원 예산의 합)으로 나눈 평가산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9년 실적치는 전년(2018) 대비 107.044 증가한 370.509로 목표부여 최고목표치 316.158를 초과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지표가중치 10.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실적은 2018년 263.465에서 2019년 370.509로 증가하여 40.629%의 성과 향상을 보였으나, 2019년부터 지표의 평가산식을 변경하여 변화 추세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본 지표는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우수 한식 교·강사양성과 인력 DB를 확보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다.
- 교육실적인 교·강사 교육인원은 99명으로 전년도 223명 대비 55.605% 감소하였으며, 교육지역도 29곳에서 25곳으로 4지역 감소하였다.

- 교·강사 교육인원과 교육지역이 모두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치가 40.629% 증가한 이유는 지표의 평가산식을 변경한 원인도 있으나, 2018년 예산 2,455백만원에서 2019년 예산 668백만원으로 1,787백만원의 예산감소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지표는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우수 한식 교·강사양성과 인력 DB를 확보해 나간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성과목표를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
- 2019년 교·강사 교육인원은 99명으로 2018년 223명 대비 55.605% 감소하였으며, 교육지역도 29곳에서 25곳으로 4지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실적치가 40.629% 증가한 이유는 분모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감소가 주된 원인이므로 예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의 평가산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1) 홍보 효과도(국내외 홍보 효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언론 노출 건수/예산액 X100	목표 대 실적	110.928	120.11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한식문화 및 진흥원의 사업 홍보 관련 언론 노출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문화 언론노출도 증가율 목표치 110.928 대비 실적치 120.11로 목표치 108.2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문화 언론 노출도 증가율은 2015년도 27.438, 2016년도 46.335, 2017년도 70.487, 2018년도 92.440에서 2019년도 120.11으로 지속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였다.
- 2019년 성과 목표치(평가산식: 언론노출건수/예산액*100)는 달성하여 정량적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한적인 홍보 예산과 인력으로 최근의 급변하는 홍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TV, 신문 등)이외에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기관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과 연계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양적 측면에서의 성과 달성과 홍보 채널 다양화 등의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홍보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사업 성과 평가를 위해 활용된 지표(평가 산식)도 이러한 홍보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 홍보 내용(당 기관 추진 사업 홍보, 한식/한식 문화에 대한 인식/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홍보 매체(온라인, 오프라인 등), 홍보 대상(연령, 국적, 성별 등) 등 다양한 요소(요인)들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정교한 홍보 전략을 수립·실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이 한식 홍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목적)가 단순히 언론노출건수 확대(홍보의 양적 확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과지표는 기관의 이러한 설립 취지와 사업추진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언론노출건수/예산액)는 예산액이 감소 될 경우 기관의 홍보실적/성과(언론노출건수)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되는 한계가 있다.
- 계량지표와 함께 일부 비계량지표가 성과지표로서 제시되고 있으나 비계량지표의 경우에도 여전히 일부 제한적 또는 단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 적정한 사업점검이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질적 성과/개선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 사업의 질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정량적 관점에서 사업성과를 측정하는 현재의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정성적 측면에서 홍보 사업추진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수립과 연계 활용, 목표설정,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기관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홍보한 사항도 홍보효과(실적)에 포함되고 있다. 기관 사업의 홍보도 중요하나 당 기관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경우 한식/한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해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한식문화관 운영성과

(1)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정도*	목표부여 (일반)	157,300	153,670	19.54	1.00	0.98
		4,356	7,512	80.00	4.00	4.00

* 한식문화관 운영 활성화 정도 = (방문객 실적/방문객 목표)X0.2+(체험객 실적/체험객 목표)X0.8

나. 평가내용

- 한식문화관 방문객, 체험객 증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문화관 방문객 실적 목표치 157,300명 대비 실적치 153,670명으로 목표치 97.69%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점 만점 중 0.98점을 획득하였다. 한식문화관 체험객 실적 목표치 4,356명 대비 실적치 7,512명으로 목표치 172.45%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문화관 방문객 실적은 2017년 149,042명, 2018년 153,619명에서 2019년 153,67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향하였다. 한식문화관 체험객 실적은 2017년 5,273명, 2018년 6,215명에서 2019년 7,512명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하였다.
- 최근 한식진흥원 사업의 중심이 국내 사업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국내에서 내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직접적인 사업을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한식/한식문화에 대한 인식/이해 제고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한식진흥원의 설립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본 사업의 양적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문객/체험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적정 궤도에 올랐으며,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제시·활용되고 있는 계량 성과지표(방문객(체험객) 실적/방문객(체험객) 목표*가중치)만으로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성과를 점검/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성과지표(방문객(체험객) 실적/방문객(체험객) 목표*가중치)의 경우 목표치를 어떻

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목표(성과) 달성 수준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따라서 한식 문화관의 양적 성장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질적 개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도 못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개선(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완적인 지표 활용이 필요하다. 사업(프로그램) 점검을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보다 구체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도 동반된다면 사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사업에 비해서는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고객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확대/연계 등의 다각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업대상이 광범위하며, 직접적으로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한식 문화관 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파악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사업 자체로도 의미/중요성이 충분히 있으나,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문화관 시설의 운영만을 통해서도 정량적 성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결국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화관을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검토, 문화관 이외에도 다른 시설(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장기적이고 다양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일련의 정규화된 과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제와 계량/비계량 지표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있

어 대부분 기존사업 확대나 개선에 치중하고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의 예측과 이에 따른 기관의 역할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발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장기 자원배분 기본방향의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일련의 정규화된 절차/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영환경 분석, SWOT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이 수립되고 세부실천과제가 도출되고 있는 시스템은 적절히 작동되고 있다. 사업별 재무, 예산계획, 자원배분계획도 중장기 자원배분 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기관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추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선정시 SMART 분석 외에 P(public)/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키라는 전년도의 지적사항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성과지표 POOL과 선정된 계량 및 비계량지표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선정 프로세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 한식 세계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기존사업에서 벗어나고자 국내 위주의 한식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D0” 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대부분의 사업이 실적 달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양적 목표 달성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한식 콘텐츠 활용성 제고를 위한 한식 포털의 경우, 양적으로는 충

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이 구독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매거진 구독자 수가 증가한다고 한식 저변이 확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년도 지적사항과 같이 추진 사업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사업 계획의 수립·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사업 실행을 통해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실행과제별 세부 추진내용을 설정하여 세부 추진내용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도출·반영 프로세스 등이 잘 작동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본원과 분원인 한식문화관이 언론매체 홍보채널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본원과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바, 한정된 예산·조직에서 본원과 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식전문 공공기관에 맞는 전문인력의 비중을 높이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D0”로 평가한다.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는 설정된 목표치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하였다. 제시된 비계량 지표도 소기의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기관 운영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러나 사업 성과의 적정 수준 달성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활용된 지표들이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데 유용한(적정한) 지표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제시된 목표치와 이에 따른 실적들이 기관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들이 소기의 목표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비계량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 다양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성과지표(계량, 비계량)들이 소기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기관의 근본적인 설립목적과 경영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 한식문화 언론 노출도, 한식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은 절대적(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기 보다는 예산액의 감소로 절대적인 실적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식콘텐츠 활용도(계량지표 성과)는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자체적인 콘텐츠 확대, 전문성 강화 등 콘텐츠의 품질적(내용적) 요소가 개선이 필요하다.
- 한식포럼 참여자 만족도 제고, 음식관광상품 보급,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확산과 경쟁력 강화 등의 성과 달성이 한식진흥원이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도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양적, 질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 한식진흥법 제정과 함께 향후 기관의 역할과 이에 대한 기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부터 이를 관리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금년도에 코로나 발생 등으로 기존의 계량지표 활용과 양적 관점에서의 목표치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관 사업의 적정 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도입에 대한 검토와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환류를 통해서 사업 운영과 성과를 개선하는 절차/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주기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세부사업별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기관 사업(경영)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실행 과정 및 차년도 사업계획과 전략 방향 수립에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외부(경영평가단) 지적사항도 반영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환류 활동(과정/절차)은 비교적 적절하게 수행된 반면, 이러한 환류를 통해서 사업 전반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개선 이루어졌으며,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
-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사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환류를 위해서 내부와 외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와 환류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내외부 평가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대부분 추진 사업과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시도하였다.
- 내외부 지적사항들이 세부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업 전반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관의 체계적·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양은 측면이 있다.
- 한식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콘텐츠 재가공·배포 시행을 하였으나 충분한 질적 개선을 달성하였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자체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내용이 심화된 콘텐츠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SNS홍보 채널 활용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사업 홍보보다는 한식/한식 문화의 이미지/인식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으며, SNS 채널의 양적 발전(이용자 수 확산 등)도 보다 이루어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밖에 경영평가단 지적사항으로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 관련하여 장기적·체계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조치하였다고 제시하고 있

으나, 기관의 장기적 플랜의 방향과 구체성이 보다 충분하게 드러나도록 계획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5)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사업을 단순한 사업 성과의 달성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계획·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구축 등 최근 국가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동시에 인권, 사회적 약자 등 배제되기 쉬운 가치들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사업 추진을 통해서 연계하여 제시한 사회적 가치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구체적이고 적극적 또는 광범위하게 반영되기 보다는 한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연계하여 제시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온전하게 창출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식진흥원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창출하고 극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적·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가치를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정의 성과도 달성하였다. 주요사업의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와 환류를 실시하였다.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세부 사업들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국가 및 사회적으로 기여하였는지는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제시된 사회적 가치와 선정된 사업들이 상호간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부합되는지(또는 선정된 사업들이 제시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인권의 보호’ 라는 사회적 가치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한식 정보 조사 및 결과 배포(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온라인 홍보 채널 관리)의 경우 상호 연결고리가 모호하다.
- 전년도에 이어 한식 체험 프로그램(한식문화관)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이 보다 확대/다양화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타 기관 프로그램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이밖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균형 발전 등의 경우에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 이외에도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 전략(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광범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 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 로 평가한다.

⑥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미션은 한식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비전은 한식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한식전문 공공기관, 설립목적은 한식, 한식문화 및 한식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가 제시되어 있다.
-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목표는 1) 한식정보 및 인프라활성화로 한식저변 확대, 2) 한식체험확대·관광코스개발 등 음식관광활성화, 3) 전문교육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

출 기여, 4) 한식해외확산 및 농식품 수출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는 1) 한식아카이브 DB확산, 한식산업 포럼운영, 2) 한식문화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지원, 한식교강사 교육, 4)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강화, 한식홍보 SNS 확대운영으로 되어있다.

- 성과목표에서 도출된 핵심성과지표는 SMART분석을 통해 뽑았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어떠한 근거로 핵심성과지표가 도출되었는지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기관설립목적 이 한식산업진흥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지표가 핵심성과지표로 설정되어야 하나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지원, 해외한식당 협의체 강화, SNS 확대운영 등이 왜 대표핵심 성과지표인지에 대한 근거와 연계성이 부족하며, SMART기법 프로세스 또한 근거, 객관적인 자료(내외부) 등을 종합해 설정했는지도 의문이 든다.
- 성과지표의 경우 전년도에서도 지적한 바,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성이 높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설정에 있어 내부의 의견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전문가 등의 외부참여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시한 SMART기법은 형식적인 도식화에 그치므로 기관의 역력이 된다면 체계적인 지표도출연구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D0” 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대표성과지표의 산식을 검토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한식콘텐츠 활용도 지표의 경우 한식아카이브 사이트 페이지뷰, 협조시스템 페이지 뷰, 민원접수 콘텐츠 제공실적의 세부지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한 개의 지표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면 다른 지표의 성과가 낮게 나타나도 목표달성도를 100% 충족하게 되는 구조이다. 한식콘텐츠 활용도 지표가 기관의 대표성과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면 산식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식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지표 산식을 보면, 분모에 교육인원과 교육지역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산식은 지역을 늘리게 되면 목표달성도가 100% 넘어가게 되어 바람직한 지표로 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산이 줄었을 경우, 지역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많이 편성하면 자동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 국내외 한식홍보효과의 경우 언론노출인 지표산식이 문제가 아닌 대표지표로 설정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지표는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보다 기관 차원의 관리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식문화관 이용활성화 지표의 경우 방문객 실적과 체험객 실적 합으로 되어 있어 체험객 실적만 넘으면 배점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체험객의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지표 자체가 방문객보다 체험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지표인 만큼 방문객을 빼고 체험객을 외국인, 내국인으로 구분해 산출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D0”로 평가한다.

IV.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Ⅳ.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1. 정책제언

- 평가지표 개선 등 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선사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에 관한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영평가 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평가편람 수정 및 보완 필요

- '19년도 경영평가 편람상 일부 계량지표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표준화된 평가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표임에도 산출 방식이 기관 별로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19년도 평가의 경영관리 범주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구현' 범주 중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세부항목에 장애인 의무고용 항목이 장애인 의무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해석된다면, 50인 미만의 기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등 모든 농림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이 가능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 또한, 같은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세부항목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평가항목의 경우 세부 지침에 제시되지 않아 기관마다 적용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편람 상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에 관하여 함께 배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9년도 경영평가 편람 내 해당 사항이 없는 지표의 경우 점수 산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는 지표가 발생할 시 평가방안 명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세부항목에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평가항목과 같이 매년 해당 사항이 없는 기관이 다수 발생하는 항목의 경우 지표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거나 감점 지표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경영관리 지표의 ‘총 인건비 관리’ 지표에서는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총인건비 인상률은 모든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통으로 매년 100%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공통으로 동일한 득점이 발생하는 바, 지표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거나 감점 지표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또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비계량지표의 평가 등급(A+~E0)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허위 및 오류보고 시 페널티 구성 등의 기준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페널티에 관한 내용 구성 시, 중대성 정도의 판단 기준은 평가단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 및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실적보고서 작성 지침 및 성과요소 확인사항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의 '19년도 실적보고서의 경우, 피평가기관에 따라 목차, 형식 등이 상이하여 원활한 평가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계량지표를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하여 개별 지표에 대한 점수만 기술했을 뿐 세부 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또한, 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상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에 관한 기술의 경우 같은 지표 내 다른 세부평가 항목에 관한 기술 시 포함하여 작성하라고 안내되어 있었으나 일부 기관은 분리하여 작성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사회적 가치구현 범주의 계량 지표에 대한 득점을 한 페이지에 정리하여 해당 점수의 근거나 세부내역에 대해 실적보고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한식진흥원의 경우,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에서 5번째 세부항목인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에 관한 기술을 따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나 실적보고서 작성지침 상 1~4번의 세부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4개 모든 기관이 기관의 주요 성과를 실적보고서에 가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는 서면평가에서 다량의 추가확인 사항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추가확인 사항에 대한 실적자료 또한 평가위원이 의도한 성과 확인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실적보고서 작성 지침 하달 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평가기관이 실적보고서 작성 시, 경영실적 평가의 관점에서 기관의 주요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 역량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 및 개발 필요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핵심은 성과목표의 선정과 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임에도, 4개 기관 공통으로 성과도출이 비교적 쉬운 지표만을 제시하거나, 기관의 운영 비전 및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지표를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각 기관의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축산물위생사업 지표 관련,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곧 임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체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의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지표의 경우, 평가산식이 사업설명회 지원업체 수 + Value-up 전문가 컨설팅업체수 + 해외마케팅 지원 업체수 + 국내마케팅 지원 업체 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 요소가 성과가 높게 나올 시 전체의 성과로 보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선박 AGM 검사지표가 기관설립, 목적과 연계된 지표이나 총 30점 만점 중 67%에 달하는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점 구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국내외 한식 홍보 효과 및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언론 노출 건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실적에 불과한 과정지표로 홍보의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액을 분모로 잡고 있어 예산을 줄이면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계산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지표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목표 달성으로 아무리 좋은 점수를 획득하

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사업운동을 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영평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구성의 적절성 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성과의 목표치와 성과 측정방법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치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목표치와 측정방법이 잘못 정해진 지표가 존재하였다. 이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하였음에도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순히 지표를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설정된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측정방법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목표 난이도 및 도전성에 따른 배점 고려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전년 대비 단순 수치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며, 환경분석 및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설계를 선행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